진리 평화 창조

외대학보

발 행 인 안 병 만
편 집 인 겸 주 간 한 덕 규
편 집 장 이 현 재
외대신문사 ☎962-7128, 961-4151
외 대 학 보 ☎961-4152, 961-4183(FAX겸용)
학생기자실 ☎959-6574, 0335-30-4112
130-791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1
449-791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왕산리 4989
인 쇄 인 김 상 영

창간 1955년 4월11일 [주간]
등록번호제 다253호

THE OE DAE HAGBO

제636호 1994년 11월 22일(화)
1958년 3월 27일 제3종 우편물(가)급인가

1

용인 16대 총학생회 선거 정석민 · 임성은 조 당선

서울 기호1 손일문 · 김재건 기호2 하용갑 · 정성철…유세는 24·28일

95년 용인캠퍼스 총학생회를 이끌어갈 주인공은 정석민(동학 · 마인어 3) · 임성은(동학 · 아랍어 3) 군으로 확정됐다.

총 유권자수 5천 5백59명중 3천 4백49명이 투표에 참가해 전체 60.25%의 투표율을 보인 이번 선거에서 기호 2번 정석민 · 임성은 조는 총 1천 8백89표를 얻어 54.4%의 지지율을 보이며 당선됐다.

이와함께 기호 1번 이희진(사회 · 경제 4) · 김병준(서학 · 노어 4)조는 총 1천3백35표를 얻어 전체 투표자의 40.45%의 지지율을 얻었다.

이날 총학생회장으로 당선된 정석민군은 "내년안에 왕산 5천 8백 학우들을 위한 학원자주화투쟁을 힘차게 실천해 나가겠다"라며 기존 총학생회들이 풀지 못한 많은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강하게 시사했다. 이와 더불어 부총학생회장으로 당선된 임성은군은 "사명감과 책임감이 앞선다"라며 "등록금 투쟁부터 시작해 열심히 해나갈 것"이라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이번 총학생회 선거에서 각 단대별 투표율은 아래표와 같다.

한편 서울캠퍼스 제29대 총학생회 정 · 부회장 선거는 오는 30일(수) · 12월 1일(목) 실시된다. 지난 14일(월) 부터 17일(목)까지 있었던 후보 등록 기간에 9백27명의 추천을 받아 영어과 학생회장 손일문(영어 3) · 사범대 학생회장 김재건(한교 4)조가 기호 1번으로, 이와 함께 2천5백20명의 추천을 받아 정책과학대 학생회장 하용갑(행정 4) · 법대 학생회장 정성철(법학 4)조가 기호 2번으로 등록해 이번 선거는 경선으로 치열한 양상을 띠게 됐다.

양 후보와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지난 17일 1차 모임을 갖고 대중적 선거를 치루기로 다짐했다. 이 자리에서는 추천인 명부 확인이 이뤄졌는데 양후보 선거본부의 요청으로 중복 추천 확인은 이뤄지지 않았다. <관련기사 3, 11면>

이와 더불어 선관위는 이후 선거 일정을 공고했다. 선거 일정은 다음과 같다.

선거 운동기간 : 18일(금)~29일(수)
1차 유세 : 24일(목) 오후 2시(4시 언론협의회 주최 정책토론회)
2차 유세 : 28일(월)
투표 기간 : 30일(수), 12월 1일(목) <박일천 기자>

단 대	투표율
서양학대	48.34%
동양학대	67.70%
동구어대	66.09%
인문대	68.42%
사회대	69.94%
자연과학대	64.26%

□현장취재—UR과 추곡수매로 흥흥해진 군산 · 옥구의 농심을 알아본다

한가로움 속에 흐르는 '절망'

해방 이후로부터 계속된 살농정책, 요즈음 들어 더욱 농민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수입개방, 가장 최근의 추곡 수매까지 농민들의 한숨은 깊어가기만 한다. <전북 옥구에서>

미국은 다음달 3일(토) 국회에 UR비준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얼마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압승에도 불구, 통과 가능성은 높다고 관단된다.

우리 정부도 미국 UR비준안이 상정되면 그것을 통과시키겠다는 뜻을 비추고 있다. 작년 12월 UR협상 타결후 농민들이 애타게 외쳐왔던 "최소한 생계보장 위한 대책 마련후 비준하자"라는 요구에는 그동안 정부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최근에는 오히려 '개방'을 명분으로 수매가를 낮추려 할만이 돼있다.

최근 정부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은 폭발직전까지 와있다고 한다. 본교(서울캠)에서 농활갔던 전라북도 옥구군을 찾아가 현재 농민의 심정을 들어본다. <편집자>

'수입개방 저지, UR비준 반대와 후속협상 쟁취, 농산물 가격 보장 쟁취'등을 내걸고 지난 10월말 전북 고창 · 부안에서는 "농업을 죽이려면 내 목을 가져가라"고 외치며 농민 시위를 벌였다.

UR과 수입개방에 대한 어떠한 대안도 내놓지 못하고 농정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성의조차 보이지 않는 정부에 대해 농민들은 전국적인 투쟁을 벌이고 있다.

정기국회 회기내에 UR비준안을 처리하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을 신호로 살농정책을 노골적으로 들이대고 있는 정부는 이번에 추곡수매가 동결로 농민들의 반발을 더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이번 정부의 수매가 발표 직후, 전남 지역 농민들이 도청으로 몰밀듯 밀려가는 등 이번 정부 방침은 수입개방으로 그렇잖아도 막막한 농민들의 목을 더욱 조여가고 있다.

이렇듯 폭발할 듯한 농민들의 불만에 반해 전북 군산 · 옥구 지역은 의외였다. 지난 여름방학때 본교 서울캠퍼스에서 농활 갔을때의 그 분주했던 모습은 볼과 몇달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찾아볼 수 없었고 황량한 들판 만큼이나 텅 비어있는 집들과 가끔 들일을 하는 몇몇 농민들 뿐이었다. 농한기를 맞아 한장 한가롭고 평온하기까지 한 모습이었다.

그러나 "더 이상은 물러설 곳이 없어요. 이젠 더 내줄 것도 없잖아요. 올해 추곡 수매가가 동결되고 수매량을 30만섬이나 감축해서 발표한 데는 여당의원들까지 의아해 했다면서요. 도대체 제 정신이고서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농업을 포기하고 농민을 말려 죽이자는 작정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라며 옥구지역 농민들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문성주 씨의 말에서 그것은 평온이 아니라 '포기'였음을 알 수 있었다.

몇몇 논에 꽂히있는 수매대금 가압류 표시는 절망적인 농민들의 표정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저 집도 노가다 나가느라 비었을 거예요. 아마. 그 집사람은 군 식당에서 일하고 있구요. 우리도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잖아요 뭐…", 라고 말하는 마을 주민들은 이런 농한기 때, 생계를 위해 다른 일들을 구하러 다닌다. '이대로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투쟁이요?… 그럴 가능한가요? 지금까지 싸워온 것도 어딘데… 아무런 대책도 없는 무능력한 정부에 무얼 기대 하겠어요?"라는 주민들의 대답은 이제 더이상 당국에 기대할 만한 것도, 그럴 가능성도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이 마을 농민들도 향후 쌀 재배 면적을 줄여갈 예정이며 이들은 기존 정부의 쌀 정책에 대해 "물가가 20% 올랐다고 수매가를 3% 인상 한 것은 물가 안정을 내세워 농민 희생만을 강요한 것 밖에 안된다. 이젠 어떤 말도 믿을 수가 없다"라고 분노했다.

또한 수매량 중대만이라도 바라는 이들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남아도는 쌀들을 처리할 방법이 없어 도매상들에게 그냥 넘기는 그야말로 '밀지는 장사'를 하고 있다. 때문에 이들에게 돌아오는 건 빚더미 뿐이었다.

돌아오는 길에 대합실에서 만난 한 할머니는 "97년인가 부터 그 수입개방인지 뭔지 외국쌀들이 엄청 들어 온다며? 우릴 말려 죽일 셈인가 본데, 젊은 사람들은 나가서 막노동 이라도 하겠지만 우리 늙은이들은 갈데가 어딨어. 살아도 땅에 살고 죽어도 땅에서 죽는 것이제…"라며 끝까지 땅을 지키겠다고 한다.

젊은 사람들이 거의 떠나 텅빈 듯한 이 마을도 오는 27일(일). '전국 농민대회'에 그나마 적지않은 기대를 걸고 있다. <박수정 기자>

반의자

2.0의 망령

▲필자가 고등학교 다닐 때 있었던 일이다.

학생회장 직선제가 개교 이후 처음으로 있었다. 그때까지는 선생님들이 각 반의 반장중에서, 특히 육성회장이나 돈많은 학부모의 자식을 지명하곤 했다.

그런데 후보등록 과정에서 우리반의 입후보자가 학교측의 반대로 출마하지 못했다. 전교 50등안에 들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친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 친구들과 함께 '부당함'을 선전했다. 여론이 확산되자 학생주임이었던 담임선생님은 그를 전교생으로부터 고립시키기 위해 "공부도 못하는 그애는 시험을 잘 못보면 땅을 치고 우는 속이 좁은 놈이다", "성적이 괴팍하다"는 등의 악성루머를 퍼드린 끝에 결국 작전에 성공했다. 학교를 자퇴한 것이다.

나중에 알고보니 그 친구는 1학년 때부터 전교조 선생님과 '교육개혁'을 위한 활동을 해왔었다.

▲전국의 대학교가 이제 선거를 본격적으로 맞이하고 있다. 쓰라린 옛기억을 되살리게 되는 것은 학교에서 '각 과 · 단대 · 총학생회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는 필히 성적이 평점 2.0을 넘어야 한다'는 공문을 작성했기 때문이다.

동양어대에서 당선된 한 과회장에게 학교측은 "너에게 대표자격을 줄 수 없기에 공식적인 대화를 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몇몇의 학교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

여하튼 대부분 고등학교때 그 친구처럼 '포기'나 '자퇴'하지 않고 오히려 '한쪽 귀로 듣고 다른 귀로 흘리는' 상황이다.

▲'카멜레온'은 자신의 모습을 자유롭게 변화시키지만 본심은 변하지 않는다고 한다. 나쁘게 말하면, 본능적인 요구인 자신의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서는 정세를 파악할 수 없도록 권모술수를 쓴다고 볼 수 있다.

힘의 우위가 확실할 때는 백주대낮에 살인을 하고 당당히 걸어다닌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을때는 다른 사람을 시켜 자기 속마음을 드러내고, 더나아가 입체적인 변신으로 지조(?)를 지키는 '열녀'로 둔갑하기도 한다.

우리 주변에는 '카멜레온'과 같은 세력이 존재하기에 너무나 안타깝다.

<이옥선>

지 · 면 · 안 · 내

3면
본교를 방문한 미국학 연구가를 만나
4면
3. 두만강 개발계획에 대한 각국의 이해와 진출 현황
6면
용인 모현학사 세탁기 문제 있다
8면
담배인삼공사의 공문서 위조 사건
9면
청년학생 자주교류 투쟁 악사
10면
5. 부실한 각계의 교육개방 대안

제 29대 총학생회 선거 입후보자 약력 및 공약 소개

정정당당한 정책대결로 장년외대를 책임지겠습니다

때 : 1994년 11월 30일(수), 12월 1일(목)
곳 : 중앙 도서관 앞

<기호 1>

정 : 손일문(서양 · 영어 89)

69 서울 출생
88 서울 영락고 졸업
89 본교 영어과 입학
90 영어과 사회과학회 학회장
1학기 서양어대 학술부 차장
2학기 서양어대 기획부장
92 민중대통령 외대 후원회장
94 영어과 학생회장
제29대 총학생회장 입후보

부 : 김재건(사범 · 한교 91)

71 서울 출생
90 서울 용문고 졸업
91 본교 한국어 교육과 입학
2학기 한교과 교육학회장
92 2학기 사범대 교육부장
93 1, 2학기 사범대발전 추진위장
94 사범대 학생회장
한총련 개혁모임 외대 대표
제29대 부총학생회장 입후보

<기호 2>

정 : 하용갑(정책 · 행정89)

69 서울 출생
88 서울 서라벌고 졸업
89 본교 행정학과 입학
93 행정학과 모의국무회의 준비위원장
94 정책과학대 학생회장
제29대 총학생회장 입후보

부 : 정성철(법 · 법학91)

71 전북 김제 출생
90 전주 전일고 졸업
91 본교 법학과 입학
92 법과대 문화부장
94 제8대 법과대 학생회장
제29대 총부학생회장 입후보

실험과 진보의 외대

1. '외대 제일주의'를 넘어 실험과 진보의 외대로
   - 비판적 지식과 창의적 실험정신이 숨쉬는 외대
   -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교양과정 확충없는 지역학 도입은 무의미하다
   - 비판적 지식인으로서 진보적 사회세력과 연대
2. NEO-RESISTANT ACADEMISM
   NEO-RESISTANT CULTURE
   - 학사징계 및 제적기준은 하향조정돼야 한다
   - 학회간사학교, 학회커리큘럼에 대한 공청회 개최
3. 학생회, 이젠도는 돼야 한다
   - 대리주의의 깃발을 내리고 현장권력을 강화시켜야
   - 형식적 민주주의를 넘어 참여와 연대의 열린 공간
4. '자치대학' 우리들이 가야 할 미래
   - 학부위의 예결산 공개와 대생협 건설
   - 총학생회 주최의 교양강좌 개설
5. 민족해방파(NL)와 민중민주파(PD)의 껍데기를 벗는다
   - 민중민주파는 복수화되고 다층적인 전선에 개입해야 한다
6. 새로운 저항운동으로 학생운동을 재편하자
   - 한총련의 개혁, 더이상 늦출 수 없다

'95 살맛나는 외대

1. 당당한 참여, 생동하는 공동체
   - 여론수렴의 직접 통로 : 도서관에 전용스크린(정보, 학생회 소식), 화이트 보드 설치
   - 실험은 끝났다 : 삶에 기반한 학생회
2. 교육시장개방의 폭풍에 맞서
   - 우리의 변함없는 지향 : 지역학 전면도입과 자곡동
3. 힘있고 노련한 총학생회가 그린벨트를 푼다.
   - 동문여론화, 서명 국회건설분과위에 제출
   - 차기 서울시장 후보간담회, 그린벨트이해 집단과 연대
   - 그린벨트 해제추진위원회 실질 가동
4. 대책없는 외국학 종합연구센타 왕산건립 반대!
   - 총비용 160억, 기금 20억, 140억은 누가 부담하는가?
5. 살맛나는 학교생활
   - 실험강의실, 연수원주차장 휴게공간화
   - 지역학 도입의 구체적 토대마련
   - 교양백서와 참여강의제(강의 평가제 아님)
6. 애국하는 마음을 소중히, 통일시대를 예비하는 외대인
   - 여론전(강연, 심포지엄)을 중심으로 한 통일운동
   - 한총련은 통일과 교육대개혁을 중심으로 사업해야 한다.

제 29대 총학생회선거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 설

민족대학과 외대발전의 변증법

내재된 봉건사회의 기본모순이 심화됐던 조선말, 흥선대원군은 외세의 강점에 놓인 나라를 구하기 위해 쇄국정책을 폈다. 국제관계의 변화와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정세에는 아랑곳 없었다. 결국 그의 정책은 일본의 식민지화를 오히려 부추기는 꼴이 돼버렸다. 일본인 부사의 칼에 숨진 명성황후는 외세의 조선 강점을 또다른 외세의 힘으로 극복하려다 실패했다.

흥선대원군과 명성황후의 모습은 세계질서의 거대한 변화의 흐름속에 조선말 이후 제2의 위기에 봉착하고 있는 우리민족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남겨주고 있다.

바로 우리민족 앞에 닥친 시련은 우리 민족 스스로의 힘으로 세계정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모든 국제관계의 변화를 우리 민족 이익에 복무하도록 이용하고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열악한 교육환경 등 중첩된 내부 문제를 안고 있는 외대가 교육시장 개방이라는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방향 또한 마찬가지다. 외대인의 힘으로 이겨내야 한다. 그러나 그간 진행된 양캠퍼스 총학생회의 활동은 수많은 성과를 이룩했지만 '외대발전'이란 명제앞에서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오류를 양산했다.

서울캠퍼스는 지난 92년부터 3년에 걸친 외대발전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외대발전 운동 과정은 자본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위해 자본의 논리속에 빠져드는 느낌을 주곤했다. 외대발전이 곧 사회변혁에 복무함을 놓친 적이 많았다. 외대의 문제를 서울캠퍼스 학생들만의 힘으로 해결하고자 했던 독자적 움직임 또한 왕산학생들에게는 북한의 동의없이 혼자 통일하겠다는 논리와 다를 바가 없는 모습으로 비쳐졌다. 용인캠퍼스 또한 14대 총학생회에서 걷었던 무수한 시행착오를 극복하고 학원자주화 추진위원회라는 조직복구와 여망회복으로 왕산발전을 위한 여러 사업들을 추진했다. 그러나 중·장기적 전망이 부재한 근시안적 시각에서 양산된 한계는 명확했다.

이제 용인캠퍼스의 학원자주화를 위한 많은 활동들도 '외대발전'이라는 큰 맥과 함께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왕산발전, 이문발전은 결코 독자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 이문, 왕산은 외대라는 큰 두리에 묶여 너무도 긴밀히 접착돼 있다. 이의 해결은 외대차원에서 중합적 시각속에서 고민돼야 하는 것이다. 생존의 길을 모색해야 할 이때 총학생회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는 그 정도로 다양하고 넓고 깊다. 통일의 분위기가 부르틀어 가는 95년 내년도 총학생회의 활동을 기대한다.

또한 시대의 부름앞에 망설임 없었던 40년 외대사를 잇고 있는 외대인에게 당부한다. 외대인의 사명과 역할은 선거때의 단순한 한표 행사로 그치는 것이 결대 아니다.

태평성대를 구가하는 조국에 있어 지식인의 역할은 탁월한 재능과 지혜만 있으면 그것으로 그의 역할은 족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시대가 난세에 처해 있을때 지식인의 역할은 재능과 지혜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혼탁한 역사를 바로잡고 민중에 끊임없는 애정으로 청사(靑史)를 세워나갈 신념과 용기와 자존심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러한 때 지식인은 특유한 속성으로 사회와 주체의 상호연관을 부시하는 '창조적 민관지'가 되거나 곡학아세(曲學阿世)하는 무리들과 함께 쉽게 타협하기도 한다.

혈관에 뛰는 지주의 피를 지니고 세계를 호흡하는 심장을 소유한 외대인에게 부여되고 있는 시대의 요구는 통일시대를 이끌고 나갈 조국의 참일꾼을 양성하는 민족대학 건설을 '외대발전'의 논의속에 창조해 나가는 데 있다.

흡산의 소리

□잦은 학내 도난 사건을 보며

'대학인'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 각성을

내가 자주 이용하는 사운드 라이브러리에서 있었던 일이다. 열람을 신청하고 대기중었는 데 갑자기 누군가 내 뒤를 휙 지나감과 동시에 "거기 서 도둑이야! 도둑 잡아라!" 하며 한 여학생이 그 뒤를 쫓아가고 있었다. 그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이 쫓아갔지만 끝내 그 사람을 잡지 못했다고 한다. 너무 순간적인 일이라 나는 방금 내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깨닫지 못했다. 너무 의아해서 열람실 누나에게 물어보았다.

"도둑인가요?"

"예"

"가끔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요?"

"왠걸요? 요즘은 자주 일어나고 있어요." 너무나 어이없는 대답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주 일어난다는 말이 나에겐 잘 실감이 나지 않았다. 그 일이 일어난지 얼마후 나는 리포트 자료를 찾기 위해 1층 도서실을 이용하게 되었다. 그 날은 수업이 많아 가방이 제법 무거웠다. 그래서 자리를 맡고 책을 펴 놓은 뒤 수업에 들어가게 됐다. 수업이 끝난 후 가벼운 마음으로 내자리에 다시 들아왔을 때 별다른 변화는 없었지만 내 가방 앞 주머니 문이 열려 있었다. 그리고 지갑이 없어진 것을 발견했다.

대학에 입학할 당시 대학이라는 곳이 지성인의 장이며 진리탐구의 상아탑이라는 생각을 품고 들어온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교양과 인격을 갖춘 사람들이 자율속에 생활해 나가는 곳이라 믿었다. 하지만 이런 부끄러운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상황에서 어느 누가 대학생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마음 편하게 생활할 수 있겠는가. 물론 소수 사람들의 것이었지만 이런 일로 인해 우리 외대의 깨끗한 이미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까 우려된다.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공무원들의 총체적 비리가 폭로되는 이 시점에 우리는 다 같이 입을 모아 "우째, 이런일이!"라고 말하기에 앞서 우리 생활 주변에서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는 각종 도난 사건에 경종을 울릴 매임을 깨달아야 한다. 오늘도 도서실을 드나들며 여기 저기에 나붙게 될지도 모를 '소지품 주의'라는 표지가 눈에 띌까 두렵다. 옛말에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속담이 문득 떠오른다.

원종현<정책·행정 1>

□학생회 선거 후보자들에게 바란다

학내의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쓰길…

일주일동안 학내에 연례적으로 새로움을 주는 풍경인 '선거철'이 왔다.

그런데 어제 정말로 새로운(물론 개인적인 것인지도 모른다) 풍경을 접하게 됐다. 자실 엄밀히 말하자면 이것 역시 전혀 새롭다고는 할 수 없다.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도서관으로 향하는 길이었다. 노천극장 앞에 화장품 회사직원과 학생들이 분주해 보였다. 학교앤 웬 화장품 장사? 그냥 스치고 지날 수도 있었다. 점심을 먹었기 때문이었을까. 화장품 냄새 때문이었을까. 결국 나는 불만스런 마음을 참지 않기로 했다. 총학생회와 학생복지위원회에 전화를 했으나, 아무도 없거나 담당자가 없어서 잘 모른다는 대답이었다.

그런데 강의실에 가보니 학생회 선거 후보자들이 선거 유세를 하며 학생들의 지지를 부탁했다.

두 후보자들은 그야말로 신사적으로 예의를 지켰으며, 누가 들어도 이의를 달 수 없을 정도의 옳은 소리를 했다.

선거에 출월된 후보자들이나 운동원들이 화장품 차량에 조금만 신경쓰고 뭔가를 판단했더라면 그들이 말했던 옳은 소리들이 더욱 빛났을 것이며, 더욱 많은 학생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양태순<서양·서반아어 3>

동지여! 우리 가는 이길이 험난하여도 열심히 해봅시다.

—취업준비생 94 새내기—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이—

나도 취업정보센터에 근무하고 싶다.
—취업정보센터에 서성거리는 이—

취업하면 한턱 내쇼
—랄랄이—

사회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말로만 들던 '자본론'을 실제 체험합니다.
—'말지'와 '중앙일보'를 오갔던 백수—.

유전무죄, 무전유죄
—백 없는 놈—

백지 대자보

주제 : 바쁘게 뛰어다니는 취업준비생에게…

내일은 또다시 내일의 태양이 떠오른다.
—낙관론자—

취업문이 좁으면 그 문을 과감히 부숴라.
—무정부주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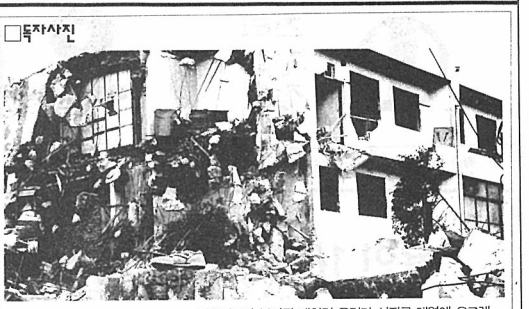
살다보면 때론 포기도 필요한 법이네.
—비관론자—

젊은 그대, 살다보면 때론 힘들때도 있죠!
힘들땐 00표 약이 최고랍니다.
—약장수—

우리가 왜 이래야만 하는지 생각해 봐요
이 사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사회 철학자—

요령보다는 실력으로 승부!
—94. T—

□독자사진



풍요(?)속의 빈곤

사진은 지난 5월 30일(월) 청량1동에서 철거당한 빈민촌이다. 직접 세운 가수용단지가 들어서 있다.

성수대교가 붕괴된 때처럼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오르게 된 사실을 또한번 부끄러워 해야 할 장면이 여기에 있다. 현재 이 곳은 철거민들이 정명화<정책·신방 2>

□91졸업생이 94후배들에게

많은 고민과 사색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야

저는 대학생활이 1개월도 남지 않은 4학년입니다. 이른바 수학능력이라는 시험을 통과해서 대학에 들어온 논리세대인 94학번에게 바라는 바가 있어 몇자 적습니다. 대학에 온지 1년이 다된 그때들이 무슨 생각을 할지 궁금합니다. 대학이란 어떤 곳이고, 그냥 남들이 사는 대로 타성에 젖어서 사는 이들도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드물지만 혹은 외대라는 집단의 사회적 기득권이 자신의 기대치보다 낮아서 실망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후배님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말은 대학에서는 모든 것을 자신이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여러분 주위를 둘아보세요. 학점과 의례적인 모임들, 그것 이외에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학점을 위한공부를 일년내내 해서 4.00이 넘는 학점의 소유자라고 할지라도 보통 우리들이 고교시절에 생각했던 박학다식한 대학생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강의들은 두학기 동안 학생들에게 20권의 책도 읽게 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친구들도 여러분과 같은 생활을 하겠지만, 그중 한명은 다른 친구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대학생활에 대한 많은 고민과 사색으로 풋(새)내기의 껍질을 벗고 가까운 미래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대학생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많은 우리 선배들은 1·2학년때 학과활동과 서클활동, 3·4학년 때는 도서관에서 자리를 틀고 영어와 시사상식을 공부하는 이런 공식으로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저학년때는 눈앞에 닥친 학점관리, 고학년때는 눈앞에 닥친 취업공부를 하게 되는 거지요. 이런 식이라면 외대생은 학밀의 태두리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을 안온하게 사는 것보다는 좌충우돌할 지라도 부엇인가 찾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럴려면 부지런하게 찾으세요. 그리고 좀더 구체적으로 이번 겨울방학에 도서관 1층과 2·3층 서고에서 많은 책들과 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더 값진 미래를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권세일<사범·한교 4>

건강한 내일을 악착같이 훔쳐라

며칠전 학교앞 카페 주위를 친구와의 약속때문에 서성이고 있었다. 스물을 갓 넘어 보이는 세명의 여자아이들이 도로가의 은행나무를 흔들고 있는 것이 보였다.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나무는 조금 떨었다. 이내 공기를 타고 그 잎이 노랗게 내리지 않는가? 모두들 환성을 지르며 첨없이 보이리만치 키득거리며 기뻐하고 있었다. 그들은 여러차례 그것을 반복했다. 그런데 저들이 그토록 즐거워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들은 바로 자연으로부터 획득한 장물(贓物)을 즐거워 하고 있었다. 자연으로부터 공해속에 빼앗긴 인간성을 그들은 되찾고 있었으며 주저없이 훔치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에 다름 아니었다.

자연에게서는 위대한 진리를 종교에선 편견없는 사랑을 국가로부터는 참된 자유를 각 개인에게선 따뜻한 마음을 그리고 '나'에게선 참된 용기를 훔쳐야할 때다. 곧 우리는 건강한 내일만은 흔들고 흔들어서라도 악착같이 훔쳐야 하리라.

김형래<대학원 독일어과 2학기>

□학보 제작중지를 보고

학보의 '자리'를 다시한번 되새기자

70여일간 제작중지된 학보를 보면서 새삼 자리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 학생측이건, 학교측이건 간에 양쪽의 입장을 떠나서 대학내의 학보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 그리고 해야 할 역할을 곧는다면 학보의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 아울러 학보를 만들고, 제작하는 사람들의 자리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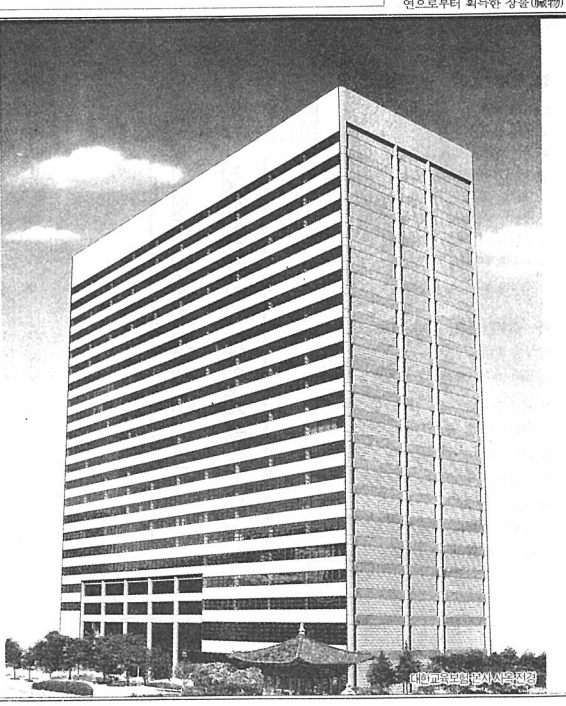
'자리란 바로 존재의 의미이며, 자신과 타인을 이어주는 소중한 공간'이라는 노은의 글 귀처럼 70여일간 단절된 학보와 우리들과의 소중한 공간은 누가 채워주랴. 우리학보의 자리는 무엇일까?

학보발행에 그다지 관심은 적지만, 다양한 분야의 목소리를 원하는 학우들, 학보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다양하고, 중립적인 목소리를 들려주어야 할 기자, 그리고 어느쪽 —학생측, 학교측— 에도 치우치지 않으려는 주간교수의 바른 목소리, 이들 목소리가 한 목소리를 냄때 학보의 자리는 지켜지지 않을까?

신라 문무왕이 죽고 경응태자가 문성왕에 오르자 문성왕은 장보고대사 딸과의 혼사를 추진한다. 그러나 장보고대사의 세력이 확장될 것을 두려워한 중신들은 반대를 하고, 장보고의 부하들은 이 궁벽한 바다 —청해진— 에 있지 말고 조정으로 나가 천하를 잡자고 한다. 그러나 장보고는 "나의 천하는 용상(龍床)이 아니라 저 바다다" 리며 닫힌 바다를 열고 보다 큰 세계를 향하여 나갈 것을 힘주어 말한다. '장보고, 열리는 바다'라는 뮤지컬이 학교내에서 재연된다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상 학보가 발행되는 중단되는 그것이 그리 중요한게 아님을 알 수 있을 것같다. 우리학보의 천하는 무엇일까?

주배일<사회·경영정보 4>

21세기 종합금융그룹——
대한교육보험이 선도합니다



대한교육보험 한시 사옥전경

1958년 국민교육진흥과 민족자본형성을
창립이념으로 출범한 대한교육보험
가장 짧은 기간에 가장 알찬 경영으로
한국보험사의 신기원을 이루었습니다.

세계최초로 교육보험제도 창안,
국내최초로 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 100% 적립,
계약자 1인당 최고의 이익배당금 적립,
94년 국내보험회사 경영평가에서 최우수 회사로 선정,
11조원에 달하는 튼튼한 보험자산 —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기반이 아닙니다.

이제 대한교육보험은 금융국제화시대를 맞아
능력있는 젊은 인재와 함께 21세기 종합금융그룹을
힘차게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대한교육보험

대한교육보험이 설립한 회사 : (주) 교보문고 / (주) 교보증권 / 교보투자자문(주) / (주) 교보실업
대한교육보험이 설립한 재단 : 대산재단 / 대산농촌문화재단

□본교를 방문한 미국학 연구가 에드워드 이코빅(Edward Ifkovic)
Tunxis Community-Technical College in Connecticut 교수를 만나

"지역학 학부도입 3~4년이면 가능하다"

전반적 토대위에 전문 영역 개척해야

날로 하락하는 외대의 질적 향상·위상 제고, 그리고 시대적 필요성에 의해 본교에서도 지역학을 도입해야 한다는 각계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안병만 총장이 초청으로 본교의 자료와 커리큘럼을 검토하기 위해 지난 13일(일) 본교를 방문한 에드워드 이코빅 교수를 만나 미국내 지역학의 현황·본교에서의 계획 등을 들어봤다. 이코빅 교수는 2주일간 본교에 체류할 예정이다.

—한국에 온 이유는

=안병만 총장이 외대에서 지역학을 연구하는데 자료와 커리큘럼이 적합한가 검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왔다.

—어떠한 방식으로 조사를 수행하는가

=각 개인과 많은 사람들, 교수·학생·직원 등을 만나 그들의 생각과 현황을 알아보고 있다.

—지금까지 대략적인 소감을 묻는다면

=일단 프로그램은 좋은 것 같다. 하지만 서로 연관성이 없고, 조금 다듬어야 할 것 같다. 3~4년이면 지역학의 학부 도입이 가능하리라 본다.

—미국학 연구가로서 또한 교수로서 현재 미국에서의 지역학 교육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말해 달라

=미국에서 미국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다방면에 걸쳐 개론 형식의 강좌를 수강한다. 이렇게 해서 기초적 지식을 쌓은 후 언론이면 언론, 음악이면 음악, 이렇게 관심있는 분야를 정해 연구의 심화를 추구한다. 즉 전반적인 내용적 토대위에 전문영역을 개척한다고 보면 된다.

—지역학 도입시 현재의 학과제(department)를 학부제(division)로 해야 한다고들 하는데 맞는가. 또 미국에서는 어떤 제도를 시행하고 있나

=맞다. 지역학을 공부하는 대학들은 학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학 강좌가 스탠포드 대학에 개설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한국학에 대한 연구 정도는

=한국에 대한 관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다지 연구된 성과가 별로 없다. 스탠포드 대학의 경우 교양 강좌로 개설돼 있을 뿐이다.

—미국내 버클리대(U.C. Berkely)가 지역학의 권위 대학으로 알고 있다. 미국내에서 지역학 과정이 있는 타대학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버클리대 이외에도 예일대와 하버드대가 권위있는 편에 속한다.

—현재 대미종속적 지역연구가 주종이어서, 한국의 독자적 지역연구가 미약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아직은 한국내 지역학 연구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지식이 없어 잘 모르겠다.

—주로 침략적 전쟁의 한 도구로 사용돼 온 '지역학'의 역사가 현재 미국에서 어떤 식으로 인식되고 있는가

'미국의 평화'(Fax Americana)라는 말에서 보듯 미국내에서 역시 '지역학'은 학문이 아니라 자국 이익만을 위한 도구로 생각하는 경향은 없는가

=지역학의 역사는 대략 20~30년 정도이다. 그만큼 학문적 정체성이 별로 없는 것이 사실이다. 지적한 사실을 인정한다. 하지만 미국을 더 잘 알고, 미국의 악영향을 극복하려면 미국학 연구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대학에서 지역학 연구를 마친 학생은 주로 무슨 학위를 받는가

=학사 학위를 받는다. 즉 '지역학사'라는 명칭이 붙는다.

—지역연구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들은 졸업하고 나서 주로 어떤 분야로 진출을 하는가

=대부분 기업체로 진출한다. 공부를 더하고 싶은 학생들은 대학원에 진학한다. 그러나 대학원 과정을 이수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 수는 많지 않다.

—UR이 타결되고 지금 한국의 교육계에서는 교육시장 개방 논의가 무성하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예상되는 외국교육기관의 진출형태나 이에 따른 이익·불이익 정도가 산출되고 있지는 않으나 일단 부정적인 전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극단적으로 말해 '하버드 분교가 서울에 생긴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기도 하는 교육시장 개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미국에서 미국대학이 외국에 분교를 세우는 식의 직접적인 경영을 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다. 다만 직접적인 투자보다는 교육 프로그램의 제공이나, 교수의 교류 정도의 수준이 될 것 같다. 한 예로 영국의 옥스퍼드대라든지 유럽에 가면 교환교수들이 있다. 학교내에 교환교수들의 연구실이 있고 강의를 하는 수준이다.

—미국에서의 학생회는 어떠한가. 또 학생회의 위상은

=미국 대학에서의 학생회는 매우 강력하다. 한 예를 들자면 각 행정부처에 꼭 한명씩 학생들이 참여한다.

학교에서도 일단 학생들이 하는 말은 경청한다. 그래서 가능한 것은 꼭 행정에 반영한다.

—이후 계획은

=일단은 교수들 상대로 다음주 목요일에 워크샵을 열 예정이다. 미국으로 떠날 때 총장에게 구두 보고를 하고, 미국으로 돌아가서 구체적인 보고서를 팩스로 보낼 예정이다.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매체를 통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바라보는 미국은 좋은 측면만 강조된 것이다. 내가 유럽에서 있을 때 다른 면도 많이 발견했다. 미국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는 게 좋다. 그리고 미국을 극복하기 위해선 더욱 미국을 알아야 한다고 보고, 이런 의미에서 미국학을 연구하는 것은 꼭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이승호 기자>

□학부모·동문간담회 어떻게 진행됐나

장기적 재정확충 마련 시급

외대 이미지 홍보 긍정적 평가

대한당국은 학부모들을 학교발전에 동참시키고자 내년에 입학식을 부활할 예정이다.

지난 9일(수) 강남·서초지역을 대상으로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학부모·동문 간담회를 마지막으로 지난 여름방학부터 21세기외대발전위원회(위원장 안병만 총장)가 주최한 간담회가 모두 마무리됐다.

지방 5개 도시와 서울 4개 지역 등 9번에 걸쳐 열린 이번 간담회는 각 대학이 교육개방을 맞아 모금활동을 벌이는 것과 관련 본교도 재정확충을 위해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모금활동을 위해 새로 결성된 21세기외대발전위원회는 정부·기업·동문·학부모·해외분과 등 5개 분과로 나뉘어져 있으며 이번 간담회는 학부모와 동문 분과가 같이 준비한 사업이다.

대학당국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얻은 성과로 학교홍보와 모금활동을 돕고 있다.

먼저 개교 40주년만에 처음으로 동문·학부모와 학교발전에 대해 대화를 가졌다는 점에 의의를 두는 대학당국은 이 자리를 통해 외대에 대한 인식과 궁지·자부심을 심어주는 장이 됐다고 파악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학 당국은 9번에 걸친 간담회에서 6천2백8만3천원을 모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학부모와 동문들이 약속한 약정액을 포함하지 않아 이를 집계하면 훨씬 많은 기금이 모일 것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연구협력처장 최영수(포르투갈어) 교수는 "이번 간담회는 학부모·동문을 상대로 한 기금 확보에 상당한 가능성을 보였다"라며 "동문들의 소개 과와에도 도움이 돼 그 지역의 학부모와 동문들을 연계시킬 수 있는 틀을 마련했다"라고 이번 성과에 대해 설명했다.

올해로 마지막 간담회를 마친 학부모·동문 분과는 내년 사업으로 입학식을 부활시킬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입학식과 함께 각 단대별 간담회도 가질 예정이어서 그 성과가 주목된다.

이번 간담회와 관련 서울캠퍼스 부총학생회장 진원(동양·이란어 4)군은 "이번에 학교가 전국을 돌면서 외대에 대한 이미지 작업을 한 것과 모금활동을 한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된다"라며 "그러나 학교발전기금마련이 유동적인 모금활동에만 그쳐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인옥 기자>

□용인캠퍼스 제16대 총학생회장 당선자 정석민(동학, 마인어3)군 인터뷰

"1백60여개 공약실현 자신있다"

장기적 왕산발전 기초 닦을 터

—당선 소감은

=당선의 후련한 기분도 순간이고 밀씨부터 어깨가 무겁다.

—1백60여개의 공약을 모두 실현할 자신있나

=자신있다.

—누구보다도 부총학생회장과 마음이 잘 통해야 할텐데

=성격차이로 갈등이 조금 있었지만 별 문제 없다.

—학생회 경험이 없는 것으로 안다. 집행부 인선 등의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왕산발전을 반대할 사람은 없다. 더 큰 조직력을 보일 수 있다. 집행부 인선은 밀씨부터 큰 고민꺼리다. 비판의 내용과 전문능력을 가진 학우들을 공개채용해서 전담부서를 마련할 것이다. 기존총학생회 간부들의 도움도 받을 생각이다. 총학내 야당역할을 할 비판세력을 형성할 것이다.

—공약사안에는 왕산발전의 장기전망이 부재하다. 이에 대한 대안은

=10~20년 후의 장기적 전망에만 매몰되다 보면 성과를 남기기 힘들다. 단기복지사안부터 실천하면서 천천히 고민하겠다. 올해는 왕산발전의 장기적 전망을 세우기위한 터닦기 작업이 진행될 것이다.

—교육시장 개방이 되면 왕산은 대학 본연의 기능을 상실할 우려가 큰데 이에 대한 생각은. 또한 대학교육의 본질적 개혁을 위한 노력도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는데

=사실 명확한 대안이 아직 없어 답답하다. 본질적인 모순해결없이는 또다른 문제가 계속 발생한다는 것 인정한다. 그러나 왕산의 현 실정에서는 단기복지사안 해결이 우선이다. 교육시장은 개방돼야 한다고 본다. 경쟁사회다. 살아남기위한 노력은 치열히 진행돼야 한다.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국수주의로 빠질 위험이 있다.

—많은 공약들이 해당 자치기구 소관인 것이 많다. 해당자치기구들과의 관계는

=해당자치기구들이 할일을 총학생회가 도맡아 하겠다는 것 아니다. 긴밀한 협조관계속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총학생회가 기존 학원자주화 추진위원회 소관업무만을 관할하게 돼 자칫 총학의 위상이 스스로 저하될 위험이 있는데

=총학생회 자체가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이다. 전담팀을 꾸려서 총학생회가 모든 업무를 담당할 것이다.

—사회정치적 사안에 대한 총학생회의 목소리는 없는가

=학내문제를 해결할 역량을 침해하는 사회참여는 배제하겠다. 그러나 사회정치적 사안들에 대한 올바른 목소리는 학우들에게 전달할 것이다.

—학생운동에 대한 생각은

=청년학생이 우리사회에서 차지하는 지위는 크다. 그러나 사회변혁의 주체가 돼서는 안된다. 보조, 협조자가 돼야 한다.

—한총련과의 관계는

=한총련 가입반대 이유는 재정적·인적지원의 유출때문이다. 그러나 학우들의 요구가 많을 때는 전체투표로써 가입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한총련 외의 학생운동단체와는 정보교환수준의 연계를 가질 생각이다. 왕산에서는 정치적 다원주의 추구할 것이다. 지금까지 너무 한가지 색깔만 고집해 왔다.

—각 단대와의 관계는

=단대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할 것이다. 단대에서의 사회참여활동은 도울 것이다.

—이번 선거에 대한 평가는

=중앙선거관리 위원회는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애썼다. 5백표차는 예상대로다. 그러나 유권자인 학우들의 의식수준은 제고해야 된다. 사실 인맥·학맥에 의한 표와 운동권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을 가진 표도 많았다. 기호 1번측도 정말 수고많았다. 이후 계속 함께 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현재 기자>

교개위, 사립학교법 개악

사학 재단 권한 강화해

교육개혁위원회(교개위)가 지난 18일(금) 발표한 '사립대학(사학)의 자율과 책임에 관한 제고방안'은 현행 사립학교법을 오히려 개악시켰다라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교개위가 사학의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취지의 일환으로 사립대 재단이사회 구성에서 설립자 친족이사수를 현행 5분의 2에서 3분의 2까지 늘리자고 제안한 부분은 사실상 사학재단의 권한을 크게 강화시키는 방안으로 파악돼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또한 교개위는 이 방안에서 이사 정수의 3분의 1을 교수·동문·동창회·학부모 등이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할 것을 제안, 평교수들이 이사회에 참여하는 것을 의무화시켰다.

그러나 교개위는 현행 교수협의회를 없애자고 제안하는 동시에 총장직선제 폐지론을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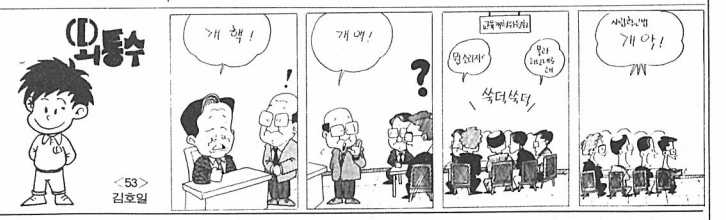
이 제안에 관하여 교개위는 과거보다 교수들의 의견이 큰 힘을 발휘할 뿐만 아니라 교수들의 의견이 무시되는 재단의 일방적인 총장 임명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종 안건이 결정될 때, 표결이 부결지면 이사회에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재단쪽의 입김이 그대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난 63년 사립학교법 제정 당시 설립자 또는 재단 친척 이사수는 총 이사수의 3분의 1로 규정되었으나 사립대 재단의 로비에 의해 지난 90년 현행 규정인 5분의 2로 늘어났다.

이 제안과 관련, 방학진(법·법학 4)군은 "이는 학교운영에 있어 재단의 독점경영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곽근영 기자>



<53>
김호일

18만 現代人의 참모습입니다.

그들은 크게 사는 사람입니다.
개인의 이익보다는 국가기간산업에
온 힘을 쏟아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는
큰 일꾼입니다.

그들은 넓게 사는 사람입니다.
신기술·신제품 개발을 무기로
세계 176개국과 교역 HYUNDAI, KOREA를
지구촌 곳곳에 알리는 국제화의 기수입니다.

그들은 깊게 사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무한 잠재력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그들이 맺은 넉넉한 결실을 이웃과 더불어
나눌 줄 아는 사람입니다.

보다 풍요로운 삶을 실현키 위해
그들, 18만 現代人의 노력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現代

□두만강개발계획에 대한 각국의 이해와 진출현황

두만강개발계획, 신질서 형성의 '초점'

글 싣 는 차 례

1. 북한 경제의 현황과 대외경제정책의 필요성
자리적 민족경제 노선과 대외경제 개방정책의 관계
2. 두만강개발계획이 가지는 동북아경제권에서의 의미
북한의 두만강개발계획의 상
3. 두만강개발계획에 대한 각국의 이해와 진출현황
남북 경협 변화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남한은 위탁가공무역과 제3국을 통한 대북투자에 관심을 두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대우와 코오롱이 북한에서 위탁가공된 물품을 남한과 미국으로 들여와 팔고 있는 상태다. 사진은 주문자 생산방식으로 국내에 도입된 북한산 가방이다. <사진 : 한겨레 21>

주변국 경제진출 위한 고리역할 가능성

이미 60개국 2백여 경제인 북한 방문

두만강 유역에 대한 각국의 진출현황

두만강개발계획이 진전됨에 따라 각국의 많은 기업들이 어떤 분야에 투자를 하는 것이 이득을 볼 수 있는 가에 대한 조사에 열중이다. 지난번 서울에서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주최로 나진—선봉 지역에 대한 투자설명회가 있었다. 설명회가 열린 힐튼호텔에는 주최측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인원이 성황을 이뤄 자료집이 동이나 사람들의 애를 태울 정도였다고 한다.

나진—선봉 지역에 대한 투자에 관심이 많은 나라는 러시아와 중국을 비롯하여 유럽연합과 미국, 일본 등이다. 유럽연합 국가중 특히 대북 경협에 열중인 독일은 함부르크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협회의 투자조사단'을 꾸려 지난 10월 중에 2주간 북한을 방문, 이미 투자조사를 마친 상태다. 유럽연합의 북한에 대한 관심은 장 크로아 주한 유럽연합상공회의소 의장의 "24시간 북한과 채널을 열어놓고 있다"는 말에서도 나타난다. 이들은 특히 철도부설등 산업기반시설 확충에서 특혜권을 따내는 것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에서 북한과 나진—선봉 지역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은 모토로라, 휴렛패커드, 포드, GM 등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북한에 통신과 전화설비에 관심을 갖고 있는 AT사는 베트남의 통신분야에 진출 했듯이 북한에도 부단히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이들 미국기업들은 주로 통신등 사회간접자본과 금융에 진출하려 하고 있으며 두만강 배후지에 많이 저장돼 있는 철강석 등의 자원과 북한의 노동력을 겸함해 중국과 동북아 시장을 겨냥할 수 있는 생산기지로서 나진—선봉 지역 이용에 관심이 높다. 미 상공인단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경제금수 조치가 일부분 해제됨에 따라 곧 북경을 통해 북한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두만강유역 진출에 가장 늦게 나선 나라는 일본이다. 일본은 주로 조총련을 통해 합작을 하고 있으나 —60여개 회사가 북한과 합작하고 있다— 북한의 대일 경계의식이 완강한 탓에 진출을 적극화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일본은 조일수교 수립 때 제공될 8백억엔의 배상금과 경수로 참여로 이를 만회하려는 전략을 구상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남한은 지난번 남북경협 발표에서도 밝힌 듯이 위탁가공무역과 제3국을 통한 대북투자에 관심을 두고 있다. 아직 직접교역 투자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는 점이 아쉽기는 하지만 그 정도나마 해소된 것이 기업들에게는 단비와 같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대우와 코오롱이 북한에서 위탁가공된 물품을 한국과 미국으로 들여와 팔고 있으며, 삼성은 전자산업을 중심으로 운춘에 진출 채비를 마치고 있는 상태다. 또한 삼성은 나진—선봉 지역에는 경공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거쳐 전자·기계·조선·통신 분야 순으로 진출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그외 럭키금성은 TV와 사회간접자본에, (주) 통일은 자동차 부품과 금강산 개발에, 한대는 금강산 개발과 조선·목재업에, 한국화약은 농업용 비닐과 플라스틱, 파이프 공장의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남북한 교역은 2억달러 수준이며, 미국도 북한과의 교역을 매년 꾸준히 늘려 올해는 2억달러의 교역량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현재는 나진—선봉 지역에 구체적인 공장들이 설립되어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기반시설이 확충되고 있으며, 60개국 2백여 자본가들이 투자를 위해 방문해 있는 상태다.

두만강 유역을 둘러싼 각국의 이해

중국

중국은 두만강 유역에 대한 개발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왔는데 애초 유엔에서 두만강 개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애쓴 나라는 중국이었다. 중국은 동해로 나갈 수 있는 항구가 없다. 때문에 남쪽의 광동성과 상해를 중심으로 경제가 개발되고 만주지역은 지금까지 개발에서 소외돼 있는 상태였다. 국가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만주를 개발해야 하고 광활한 만주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인접한 항구를 개척해야만 한다. 이렇듯 중국은 두만강개발계획을 통해 동해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만주지역의 자원과 국토를 개발하여 장기적인 국토의 균형발전과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디딤돌을 확보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

러시아도 역시 부동항이 없는 나라이다. 블라디보스톡을 개발해 군사기지로 사용하고는 있으나 블라디보스톡도 겨울이면 얼음이 얼어붙편하다. 좀 더 아래로 내려와 핫산지구를 중심으로 부동항을 개발하고 시베리아의 천연가스와 목재를 개발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다. 또한 러시아는 태평양연안의 국가로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동남아 지역으로 진출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 두만강 유역의 개발은 러시아가 아태지역의 국가로 대접받는 길을 열어줄 것이다.

일본

전세계 어디든 경제대국 일본의 상품이 진출하고 일본기업이 자원을 개발하는 데 참여하지 않는 곳이 없으나, 만주와 외몽고 그리고 내몽고와 실크로드로 이어지는 중앙아시아는 아직 일본이 진출하지 않은 유일한 곳이다. 이곳에 대한 일본의 진출은 경제적으로 대동아공영권의 완성이요, 정치·경제적으로 아시아 맹주를 노리는 일본의 마지막 목표가 되는 것이다. 일본은 이러한 자신의 목적 하에 유엔에 '환동해경제권 형성'이라는 구상을 내놓고 실현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남한

지금까지 북한과 대결정책을 취하고 소련, 중국과 친교를 맺어 북한을 고립시키고자 하는 정책을 취해왔던 남한은 약간 애매한 입장이다. 그러나 막상 핵문제가 해결되고 믿어왔던 미국마저 북한과 관계개선을 함으로써 정부도 대북정책의 변화를 서두르고 있다. 한편 두만강 유역에 대한 개발에 경제적 계산을 마친 남한의 자본가들은 정부의 정책이 국제적인 조류를 무시하고 대결정책을 지속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는 상태다. 남한은 지금 동북아에서 경제와 안보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신질서에 어떻게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위를 확보해 나가느냐가 최대의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미국

미국은 냉전의 해체로 동북아에서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길 원하고 있으며, 두만강유역 개발은 미국의 번신을 부채질 하고 있다. 더이상 일본이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것을 보고 있을 수만은 없는 미국으로써는 더이상 아시아를 안보로만 볼 수 없게 되었고 경제진출의 대상으로 보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은 그 진출을 위해 기존의 관계를 해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산업기반 시설과 통신등 정보분야에 진출함으로써 향후 이 지역의 정보통신 분야에서 선점한 효과를 누리려 하고 있다.

두만강 유역은 21세기초 세계의 최대 이벤트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여파로 남북한의 기존 대결정책과 동북아에서의 냉전이 근본적으로 해체되는 과정을 띠게 될 것이다. 한반도의 가장 북쪽에서 불어오는 경제개발 바람은 더이상 민족이 대결정책과 냉전의 어둠에 머물러 있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있다. 지금 동북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신질서의 형성, 그 중심에는 발해와 황일독립운동의 혼이 스민 두만강이 통일의 방향으로 흐르는 것이다.

남북경협 변화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북—미 3단계회담이 타결된 이후 미국과 한반도 주변 열강들은 변화된 정세에 맞게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 혈안이 되고 있다. 미국은 협상타결을 바탕으로 북한과 새로운 관계형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즉 미국은 이제 남한과 북한 모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경제적 개입을 하려 한다. 이러한 점은 주변의 강대국들도 마찬가지 인데 일본은 조일수교를 서두르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는 두만강특구를 둘러싸고 북한과의 관계증진을 위해 열심이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변화를 뒤늦게 눈치채고 있는 듯 대북정책에 대한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새로운 남북경협 안을 발표하여 기업의 기대에 불은 당겼다. 새로운 시대에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주변 강대국들에 대해 남북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해주는 작업 중의 하나인 남북 간의 경제협력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그러나 외국의 기업이 적극적으로 북한에 진출하려 하고 있는 지금 남북의 경협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수준밖에 않는다. 미국의 상공인단은 조만간 북경을 거쳐 북한에 들어가기로 되어 있는데 이 그룹에는 이름만 들으면 금방 알 수 있는 미국의 유명 기업—모토로라, 휴렛패커드 등—들이 포함되어 있다. 일본과 유럽도 마찬가지로 대북진출과 두만강 경제특구에 대한 진출을 위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경협정책은 한마디로 현실을 너무 안일하게 보고 있으며 진실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대북경협을 발표하여 새로운 남북관계를 형성하는 기초로 쌓아가고자 했으나 그 내용이 너무 진부하다. 정부의 남북경협 방안은 무역진흥공사가 합의한 나진—선봉지역 무역사무소 개설과 이전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에서 내놓은 '남북경제협력 사업처리에 관한 규정'과 '북한 사무소 지침'이 전부이다. 이것이 '남북합의서' 교환 당시 입안된 안의 제탕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있는 사실이다.

기업들은 남북경협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적절 만남과 교역이 필수적 임을 역설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내용에는

남북경협, 신질서 공동대응 위한 출발점

대화의지 · 제도개선 병행돼야

제도개선에 대한 북한과의 대화가 빠진 채 정부가 불허하던 대북진출을 '심사를 통한 허가'로 규제만을 완화한 것일 뿐이다. 제도개선에 대해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은 무책임한 발상이며 따라서 정부의 경협발표가 정치적 궁지를 모면하기 위한 여론용으로 발표한 것이 아닌가 의심을 받고 있다.

정부의 나태한 태도와 제도개선에 대한 접근이 전무한 것이 문제인 지금, 외국마저 방해사로 등장하고 있다. 지난번 한국을 방문한 미국의 무역대표부 부대표는 "남북간의 교역은 민족 외부간 거래를 규정하는 가트규정을 벗어날 수 없다"고 단언하였다. 그렇게 되면 무관세 교역이 적용되지 않아 기업들이 커다란 타격을 받게 된다. 정부의 종합적인 대처로 외국의 방해에 적극 대처해야 할 것이다.

한편 남북경협에 관한 정부의 발표에 북한은 '조평통' 논평을 통해 거부입장을 밝혔으나 개별기업과는 접촉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정부에서는 북한이 이중적인 정책을 쓰고있다고 비난하고 있으나 북한은 지금 남한정부의 진심어린 대화의지와 민족공도의식을 확인하고 싶은 것이라 생각된다. 즉 정부가 지난 대결정책을 종식하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회피한 채 경협을 통해 미소를 짓는 것은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역겨운 일'로 보일 수도 있는 것이다.

정부가 좀더 대중적인 입장을 가지고 진심으로 지난 대결정책을 반성하고 민족적 이익을 위해 남과 북이 손을 잡자고 하며 나서야 한다. 핵문제로 미국과 함께 매를 든 것은 남한이지 북한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가 진심어린 태도로 나온다면 여기에 북한도 호응해야 한다. 현재까지 과거에 얽매여 민족의 이익을 외면할 수는 없는 것이다. 통일의 제부를 쌓는 남북경협과 그를 통한 사회·문화적 교류, 남북관계를 가로막는 법제도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통일은 바로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김 성 회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교육선전국장>

눈높이교육 대교는 다양한 교육/문화 사업을 통해
어린이의 푸른 꿈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어린이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키를 낮춰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시작한 대교의 눈높이 사랑18년
이제 대교는 눈높이 수학, 영어, 국어 등의 학습교재에서 어린이를 위한 케이블 TV 대교방송, 꿈과 환상의 엑스포과학공원, 그리고 대교 컴퓨터와 대교 출판에 이르기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 세계수준의 총체적 어린이 교육/문화 기업을 향한 발걸음을 조금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눈높이 교육/아동문학상, 수학 영재 양성을 위한 전국 수학 올림피아드, 어린이 과학캠프 등의 각종 행사를 통해 어린이 중심의 문화를 싹틔우는데 노력해온 눈높이 사랑, 눈높이 교육의 대교
앞으로도 대교는 제1의 교육/문화 기업으로서 어린이를 위한 일이라면 그 어떤 일에도 앞장서 출산수범하는 어린이의 기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방송 케이블 TV
어린이 전인교육을 지향하는 어린이 채널 대교방송에서는 학습, 교양, 오락,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건강한 어린이 문화를 이끌어갑니다.
TV 대교 방송

미래 과학교육의 요람 대전 엑스포 과학공원
과학기술의 모든 것을 보고 경험할 수 있는 놀이와 교육의 학습현장
대전 엑스피아 월드가 과학한국의 미래를 열어갑니다.
엑스피아 월드

눈높이 사랑 · 눈높이 교육
대교
(02)528-0114

대교출판 · 대교컴퓨터 · 대교유통 · 대한민국 大敎文化

잘못된 분류 태산… 개선 의지 부재

도·서·관 ?

두번째— 책분류 문제

본교특성 고려한 보완장치 필요

본교 도서관 책 분류는 분류방식부터 분류된 책의 내용, 목록함, 진열 상태 등 모든 부분에 문제가 있다. 다음호에는 전공·고양서적의 질과 양에 대해 알아보겠다.

본교 도서관에서는 책을 크게 일반도서(전공, 교양)와 정기간행물, 논문, 참고도서(사전류)로 나누고 심진법을 사용해 분류해 놓고 있다.

분류목록의 문제점부터 살펴보면 먼저 분류목록이 없는 점다한 책들이 모두 속해 있는 총류와 일반상식, 한국목록 안에 들어있는 북한서적 등 새롭게 분류목록을 만들어야할 것들이 산재하다. 지연과학 분야 책 등 양이 적은 서적들이 전공의 중간 중간에 무분별하게 끼여있고 어학 관련 책들은 서유럽과 아시아 등의 지역별 구분없이 무분별하게 혼합되어 찾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다. 또한 민속이 여성학을 사이에 두고 앞뒤에 따로 있는 등 같은 내용의 책들이 다른 목록과 코드로 분리돼 있는 것도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김정식(사서과 수석주임) 씨는 "분류목록은 본교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분류를 연구하는 사람이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만들어 놓은 것이고 우리나라 모든 학교가 이 분류목록을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며 문제제기를 할 사항이 아님을 강조하면서도 "실제 현재의 분류목록 상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고치려면 모든 코드번호를 바꿔야 하는 등 할 일이 너무 많아 고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그대로 방치해두는 이유를 설명한다. 현 책 분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조윤신(성대 도서관·4)군은 "분류 방식을 완전히 바꾼다는 것은 할들겠지만 따로 목록을 만드는 등 보충할 수 있는 장치를 새롭게 마련하는 방법을 통해 단점을 극복할 수는 있다"고 한다. 실제로 용인캠 자연대의 경우에는 도서관의 책 외에도 따로 단대 열람실을 마련해 놓고 있는 상태다.

이러한 분류방식의 문제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분류된 책의 내용이 분류목록에 맞지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몇가지 예로 현재 '전태일 전집'과 '청동의 관(시집)'이라는 책이 '언론'에, '뉴스위크'라는 사회관련 잡지는 외국어로 되어있다는 이유로 '어학'에 분류되어 있다. 사서과에서는 "책을 구입하면 그 책을 모두 읽고 어디에 배치하는 것이 더 타당한가를 논의해서 배치하는 것이다"고 말하고 있으나 '통신' 안에 '주제사상 비판'이란 책이 있는 점 등은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다.

이 외에 목록마다 정해진 코드번호의 양도 문제가 있다. 심리학은 책이 그리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코드번호가 20개나 되는 반면 목록 중에 책이 가장 많아 책꽂이의 5줄이나 차지하고 있는 한국문학의 경우는 0.1단위(코드번호 8백95.1)에 서 모든 책이 소화되고 있다. 또 학회·단체, 서목·서지학 등 내용과는 상관없거나 이름이 잘못된 표지관이 붙어있어 학생들이 책을 찾는데 불편함을 주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책을 찾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목록함 역시 정기간행물은 내용과 상관없이 책이름이 가나다(국외는 나라별) 순으로만 정리돼 있고 구간은 목록함이 아예 마련돼 있지도 않은 등 일반도서를 제외하고는 문제가 있는 상태다. 또한 이러한 목록함도 책이 제자리에 꽂혀있지 않으면 책을 찾는데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인데, 실제로 학생들이 본 책을 아무데나 꽂아놓는 경우가 많아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장치가 시급한 형편이다.

지금까지 언급한 책분류 상의 문제점들은 여러가지 원인에서 기인된 것이겠지만 전문적으로 책을 관리하고 분류상의 문제 파악과 극복 방안을 연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있는 학교측의 투자부족은 가장 큰 문제라 할 수 있겠다.

<사회부>

책분류 문제 실례

분류목록과 다른 내용의 책

△언론—고석류 유고전집시리즈(실존주의, 청동의 관 등), 전태일 전집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 김우창 전집(궁핍한 시대의 시인, 지상의 척도 등), 지식인과 현실, 민족주의지의 길 등 △문화—지배권력과 제도언론, 미디어 경제학 등 △사회학—'여성학' 관련 책들이 많음 △문화—사회문제, 환경과 건강, 가정과 여성 등 △경제이데올로기—경제와 상관없는 맑스철학(철학의 기초, 맑스의 혁명사상 등)

같은 내용이 따로 배치된 경우

△'민속학'이 여성학을 사이에 두고 따로 분리 △'경제'와 '경영'·'회계'가 따로 분리 △'여성학'의 책이 '문화'와 '가정학'에도 있다.

△'환경'에 관련된 책도 두개의 코드번호(3백 1.3과 6백 14.8)를 가지고 따로 보관 등.

새 분류목록이 필요로 되는 것

△'북한'에 관련된 책들은 분류목록 없이 문학·역사는 한국어에 포함돼 있고 여러 목록(언론, 경제학, 사회학 등)에 북한에 관한 책이 있다.

△'맑스'에 관련된 책도 철학 목록과 경제학 목록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새로 목록을 만들 필요가 있다.

△각 나라의 책들도 '정치학'에는 각국 정치특성을 담은 책이 있고, 문학·역사 등에도 분리돼 있어 어학도 법전공 책이 같이 붙어 있는 것과 같이 정치, 어학, 문학 등이 과별(나라별) 로 재배치될 필요성이 있다.

학/술/단/신

서어과 사회과학 학회 심포지움

맑스 관점으로 민족주의 파악

서반아어과 사회과학 학회는 오늘 5시30분 대학원 대강당에서 '민족주의, 누구를 위한 이데올로기인가?'라는 주제로 심포지움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움은 전세계가 역사상 유례 없는 많은 민족분쟁을 겪고 있고 민족·국익이라는 명분 아래 국제화에 대한 고통분담이 국민에게 강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민족주의가 그토록 중시하는 '국익'이란 누구를 위한 것일까?"와 "국가경쟁력을 강화해서 얻는 이익은 누구에게 돌아가는 것일까?"라는 문제제기를 풀기 위한 취지에서 개최된다. 자본주의 발전에 따른 민족의 발생과정과 변천 과정, 세계대전 이후 민족주의와 오늘날의 민족주의를 통시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유고의 민족문제 등도 살펴봄으로써 오늘날의 민족주의를 폭넓은 방향에서 맑스와 레닌의 관점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이번 심포지움을 지도했던 민선재 교수(서반아어과)는 "오늘날의 문제를 토대로 학문의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고자 했다. 우리 서어과 학우들이 학문이라는 뜬든한 기틀 위에서 지아 정체를 확인하며 세계관을 구축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의의를 밝혔다.

역사문제연구소 역사교실 인물 통해 당시 민족주의 고찰

역사문제연구소는 지난 2일(수)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에 '인물로 본 한국 민족주의'라는 주제로 역사교실을 열고 있다. 이를 통해 분단 50년을 앞둔 현 시점에서 통일이라는 민족과제를 풀기위해 우리는 통일운동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 것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번 역사교실은 과거의 인물을 시대순으로 선택해 한 사건을 중심으로 고찰함으로써 당시의 시대상황과 그 상황에서 그 인물이 범했던 오류를 분석하게 된다.

2일에는 최익현, 9일에는 김옥균을 주제로 설정했고 16일에는 신채호를 통해 당시의 민족주의를 살펴보았다. 내일은 '조소앙과 삼균주의'라는 주제로 노경채(수원대 한국사) 교수가 나와 강연을 하고 마지막 날인 30일에는 '여운형과 좌우합작'이라는 주제로 서중석(성균관대 한국사) 교수가 나와 강연을 하게된다.

주한 이태리 대사 초청 강연회

한·이 관계의 회고와 전망

본교 무역대학원 원우회는 한국·이태리 수교 1백10주년을 맞아 오늘(22일) 오후 5시 대학원 2층에서 주한 이태리 대사를 초청해 강연을 듣는다.

'2천년대를 위한 한국·이태리 관계의 회고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초청강연회에서 주한 이태리 대사는 경제협력 등 앞으로 두 나라가 협력해 나갈 과제가 무엇인가를 설명할 예정이다.

□'한반도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체제로의 전환방안' 학술시민포럼

'평화체제'위한 군사·법제도…대세

정전위 '군사공동위'로 대체·평화선언 채택해야

북미 핵협상 이후 형성되는 '평화'의 분위기는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에로의 전환'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다. 사안이 복잡한 만큼 접근하는 방식이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이번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주최의 학술포럼은 다양한 의견의 최대 공약수를 찾아보자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제 1주제 '남북한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군사적 방안'의 발표를 맡은 차영구(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씨는 "현재 불안정한 대치를 하고 있는 남북한은 '평화'와는 거리가 먼 임시적인 교착상태에 있다. 아직도 북한이 재래전력에서 유리하고 핵문제로 군사적 위기가 남아있다"며 "근본적으로 북한의 정치체제의 변화가 있어야 평화체제로의 진실한 접근이 가능하기에 당분간 남북한 간의 군사적 균형을 책임지는 정전위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기에 "시나리오가 있다"고 하영선 교수(서울대 외교학과)는 제시한다. 북미 합의로 북한이 서방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자본주의 국기의 영향으로 내부의 변화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전환에 대한 논의는 형식논리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차박사는 북한이 정전체제를 무력화시키려는 것은 정치선전이라며 정전위의 기능을 정상화시켜야 그 기초위에 평화협정 성립도 가능하다는 역사적 흐름에 역류하는 주장을 한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 원칙과 국제적 보장 등을 전환의 초보적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에 대해 김성진 중앙일보 기자는 "중국·북한의 탈퇴로 유명무실화된 정전위를 중심으로 신뢰회복을 하려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핵문제도 경수로 주요부품이 북한에 들어가는(대략 5년 후) 시기쯤에 풀릴 수 있기에 내년 정도에 있을 남북정상회담에서 비핵화 공동선언을 하는 것이 현실적이다"고 반박한다. 북미의 관계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우리의 역할은 대미외교를 통해 소외된 부분을 회복하고 전환을 포함한 총체적인 대북회담을 구체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

제 1주제가 정치·군사적 방안이었다면 제 2주제의 토론은 법·제도적인 보완을 통해 평화체제로 가는 길에 완결적 구조를 형성하자는데 그 의의가 있다.

발표자인 본교 이장희 교수(법학과)는 "정전체제의 당사자는 남북한이 될 수 있다. 허나 북한과 당사자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정전위를 남북합의서에 있는 군사공동위원회로 대체하고, 장기적으로 합의서에 입각 '남북 평화공동 선언'을 채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렇게 됐을 때 평화협정의 당사자가 한국이므로 작전지휘권을 인수해야 하며 UN·주한미군이 주둔하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진다고 김명기 교수(명지대 법대)는 주장한다. 참석자의 중의 한사람은 "우리는 베트남의 평화협정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한다. 마음을 너무 놓고 있어서는 안된다"고 참석자들에게 지적했다.

최근 북한과 미국 두나라의 관계 정상화로 '정전'은 지연스럽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가고 있다. 이럴 때 휴전선 근처에서 작은 충돌과, 그로 인해 큰 재앙을 초래할 수도 있는 정전상태를 해소하고 무기규제·감축 등과 함께 국제적 규정성을 갖는 평화체제를 성립시키는 것은 시대적 대세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원 추계 정기학술제

10개국 지역학 통해 국제흐름 고찰

타국 이해 위해선 인간관계·정치 등 구체적 내용 파악해야

제 2회 대학원 추계 정기학술제가 인문과학과 지역학의 두 분야로 나뉘어 인문과학은 '세계문학의 이해', 지역학은 '국제질서의 제편과 지역연구'라는 주제로 14일(월)부터 3일간 사범대 건물에서 열렸다. 전반적인 국제흐름의 특징을 지역별로 파악하고자 준비된 이번 학술제에서는 각 10개 나라의 문학특징과 지역연구 논문이 지역별로 나뉘어 6회의 토론회가 진행됐다.

마지막 날인 지난 18일(금)에는 동북아지역 질서재편과 지역연구를 위한 토론회가 진행됐는데 '신세계질서와 중국안보'(발표자 : 김인 외대 강사)와 '중국정치체제의 개혁에 관한 비교연구'(이철원 외대 강사), '국제화 시대의 일본 집단주의'(박용구 성신여대 강사)라는 세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발제에서 박용구 씨는 "국제화는 고유한 특성을 가진 한 민족이 정치, 문화 등의 영역에서 최대한 마찰이 없는 모습으로 국제적 위상을 정립해가는 과정인 반면 강대국의 입장을 옹호하는 논리로 이용되는 이중적 측면이 있으며 국제화를 맞이하고 있는 일본이 후지적 성격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은 농후하다"며 이를 '일본인의 집단주의'를 살펴 봄으로서 타진해 보고자 했다. 그의 논문은 일본 집단주의를 '전체주의적 집단주의'라 규정하고 있는데, 일본의 군국주의화와 일본문화의 국제화라는 집단 이기주의로 표출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중국지역 연구에 대해서는 중국정치 체제개혁의 원인과 중국의 인식, 한계 그리고 중국의 안보전략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정치체제 개혁에 대해 이철원 씨는 "경제체제의 운용을 다양화하는데 정당성을 제시하고 사상적·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고 원인을 설명하고 그러나 "개혁의 범위를 사회주의를 벗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설정함으로 인해 어느정도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안보에 대한 논문은 "냉전체제 와해로 북방으로부터의 군사적 위협 감소, 미국·일본 등 경제세력간의 '갈등 현저, 미국이 국내 문제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인다는 점에서 중국은 안보에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김인 씨는 "그러나 이러한 유리한 조건에서도 중국은 미래의 세계도 여전히 군사적인 힘을 가진 축이 결정권을 갖는다고 믿고 있어 군비증강도 꾸준히 이뤄질 것이다"며 "최근의 경제발전 중국에서는 군사력의 토대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으로 또한 간주되고 있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토론에서 이희옥(외대·한림대 강사) 씨는 "최근 사회주의권의 몰락으로 중국도 곧 자본주의로 흡수될 것이라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중국 국민들의 의식이 미성숙돼 있고 공산당에 대치되는 새로운 이념이 부재하기 때문에 그러한 예측들은 옳지 않다"고 말하고 "한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인간관계와 문화, 정치 등 구체적 내용까지 파악해야 한다"며 지역학 연구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다음달 초순경에는 이번 학술제에 대한 내용이 자료집으로 발간될 예정인데 각 나라의 지역학을 연구하는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승호 기자>

NEW KOLON 2000

21세기 경제한국의 뉴리더—
코오롱의 미래를 펼쳐나갈
주역을 찾습니다.

국내 최초로 나일론 섬유를 개발하여 섬유보국의 기치를 드높이며 출발한 코오롱—
이제 코오롱은 첨단 섬유산업은 물론 정보통신, 유통, 정밀화학, 생명공학 등 미래산업에 대한 꾸준하고도 과감한 투자를 통해 21세기 경제한국을 이끌어 갈 뉴리더로서의 웅지를 세계로, 미래로 펼쳐가고 있습니다.
저만큼 다가와 있는 경제한국의 주역—
코오롱의 미래는 바로 당신이 주역입니다.
코오롱으로 오십시오.

미래를 드립니다. 젊음을 주십시오.

보람의 일터—
코오롱

용인캠퍼스 모현학사 세탁기, 문제있다

빨래, 모현학사 사생들의 가장 큰 골치덩어리

3백명이 단 한대의 세탁기 사용…사생들 불만 토로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 아침, 오래간만에 집으로 돌아가는 기숙사생이나 자취생의 손에는 항상 커다란 가방이 들려져 있다. 그것은 동복들을 마련하기 위해 고생하시는 부모님께 드릴 선물이 아니라 빨지 못하고 묵혀두었던 빨랫감이다.

용인캠퍼스 모현학사에는 여학생 2백 80명, 남학생 4백 44명이 각각 생활하고 있다. 여학생 기숙사 3층에는 한 대의 세탁기가, 남학생 기숙사엔 두 대의 세탁기가 설치돼 있다. 모든 세탁기는 5백원짜리 동전을 사용해야 하는 '유료 세탁기'이며 각 층에 '무료'로 사용하는 탈수기가 있다.

한번 세탁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45분에서 50분. 줄을 서서 앞사람이 끝나기를 기다리기엔 너무 긴 시간이다. 그래서 학생들은 세탁기를 사용하기 보다는 손빨래를 하고 손으로 빨기 힘든 청바지류의 뻣뻣한 옷은 집으로 가져가거나 차례를 기다려 세탁기를 사용한다.

이렇게 생활하는 것은 모현에서 지취하는 학생여시 마찬가지다. 지취하는 집 근처에 '빨래방'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줄 부지런한 지취생은 기숙사까지 빨랫감을 들고 올라오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손빨래로 해결한다.

기숙사생이나 지취생들에게 요즘같은 날씨엔 빨래문제를 해결하기가 더 곤혹스러워진다. 오전과 오후 각각 7시부터 9시까지 공급되는 온수로는 사워나 세수를 하기도 벅차서 더운물로 빨래하는 호강(?)을 누리기 힘든 탓이다. 기숙사생인 정현정(동학·마인어 1)양은 "3백여명의 사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세탁기가 고작 한 대뿐"이라며 "학생들의 편의를 생각하기보다 구색을 맞추기 위해 갖다 놓은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기숙사비를 내도, 또 돈을 내고 세탁기를 이용해야 하는 점은 사생들에게 이중부담을 떠 안기고 있다는 의견이 기숙사생의 대다수의 의견이다.

이에 대해 모현학사 한 직원은 "모든 옷가지를 전부 세탁기에 넣고 돌리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중중마다 탈수시가 있고, 세박기엔 손빨래 하기 힘든 옷만 넣으면 충분할 것"이라고 말해 학생들의 불편함에 아랑곳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지취생과 학교에서 숙식을 하는 학생을 제외하고서라도 7백명이 넘는 기숙사생들이 사용하기에는 '유료'세탁기 3대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렇다고해서 온수가 손빨래를 할 수 있을만큼 넉넉히 나오는 것도 아니다.

아직 겨울방학은 한달 정도가 남았다. 이 한달 동안 기숙사생과 지취생들은 두꺼운 옷을 어떻게 빨아야 하나를 걱정할 것이다.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그들의 '비애'중 하나인 세탁문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일까?

<문화부>

□컴퓨터 통신 외대 동호회 '외대사랑'이란

컴퓨터안의 작은 외대

"우리 교정을 컴퓨터 안에 옮겨 놓은 것 같애요."

최근 친구의 소개로 나우컴 안에 있는 본교 컴퓨터 통신 동호회 '외대사랑(외랑)'에 들어가게 됐다는 박상준(서학·폴란드, 휴학 ID : sabian)군은 '외랑'을 이렇게 표현했다. 또 박군은 휴학 중이라 학교에 자주 못가지만 '외랑'을 통해 학교 안을 훤히 틀어보고 있다고 한다.

지난 7월 만들어진 '외랑'은 그 결성 계기가 소박하다. 컴퓨터 통신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대학 통신 동호회를 보고 대화방에서 우연히 만난 외대생들간에 지연스럽게 얘기가 오고 가던 중 자발적으로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것.

학사일정·동아리·과 등의 정보 획득 소속감과 외대사랑 높아져

시작은 '게시판' 하나로 운영되었지만 지금은 다양한 메뉴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화방', '공지사항', '여학생 휴게실', '동아리 전당', '외대인의 광장', '정보광장', '외국어 나라'를 마련해 놓았다. '여학생 휴게실'은 다른 대학 동호회에는 없는 '외랑'만의 자랑이다. 이곳에는 다른 학교 통신지가 불건전하게 이용하는 것을 미리 막기 위해 외대 통문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놓고 있다. '정보광장'은 보고서, 취업정보, 아르바이트, 시험정보 등 뜨끈뜨끈한 소식을 전해주고 있다. 현재 준비중에 있는 '외국어 나라'는 외대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 각국의 언어만으로 통신하는 방이다. 그 예로 '영어로 우스갯말 하기' 등을 기획하고 있다. 본교에 있는 외국인 교수를 이방으로 초빙해 지연스럽고 효과적으로 어학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인 것이다. 이 방은 거의 모든 준비가 끝나가고 있어 12월 말부터는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 외국인 교수와의 통신은 내년 하기초부터 실시될 예정이라고 한다.

외대 동문이면 가입 즉시 정회원이 되고 타학교 학생이나 동여대학원생은 준회원으로 동호인이 된다. 외랑 동호인이 되려면 나우컴에 가입 신청을 하고 회원이 된 후 컴퓨터 '이야기코너'에서 'GO HUFS'를 누르면 곧바로 '외랑'을 찾아갈 수 있다. 이용하기가 편리해 '외랑'에 정식 가입한 회원은 동문 선배, 재학생, 중고생을 합쳐 1백 30여명에 이르고 있다. 또 비공식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도 1백여명 가량이 되고 있다. 또 재학생 뿐만 아니라 예전에 학교를 떠나 모교를 그리워 하는 동문선배들도 가끔 들러 후배들에게 격려도 해주고 학교 소식, 동아리 소식을 접하곤 한다는 것이다.

'외랑'에 가입한 지 2개월이 됐다는 현그미(동양·중국어 3, ID : roserose) 양은 "외랑안에서는 공통의 화제거리가 많아 금방 친해져요. 우리 학교에 대한 자긍심과 사랑, 그리고 관심도 부쩍 늘어나 '외랑'은 저를 외대인이라는 고리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라고 전한다. '외랑'에서 만난 대부분의 회원들은 정보를 얻고 친목을 도모한다는 점은 제쳐두고라도 외대인이라는 '소속감과 애착심'을 짚고 있다.

'컴퓨터 안의 작은 외대' 외랑의 모듬지기 강준운(지연·물리 3, ID : kurapa) 군은 "외대를 사랑하고,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며 "대화방활을 알차게 보내는 외대인이 되는데 도움을 주는 학문의 전당이자 편안한 휴식처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일천 기자>

□서울캠퍼스 동아리 '외대배낭'을 찾아서

배낭여행 가고싶은 사람 모·여·라!

일년에 약 4백만명. 이 수치는 90년 해외여행 자율화 이후 해외여행을 떠나는 한국인 수이다.

'어글리 코리언(Ugly Korean)'이란 별명까지 획득하게 된(?) 한국의 해외여행 문화. 그래도 배낭여행만은 건전한 여행으로 인식되곤 하지만, 젊은 대학생 배낭족 역시 해외에서 점잖은 여행객만은 아니다. 흔히 자유를 맘껏 호흡하며 경험을 쌓는다는 목적을 가지는 배낭여행은 대학생활 4년 동안에 '나도 한번!' 하는 생각들을 품게 해준다.

서울캠퍼스 '외대배낭'은 해외여행 도중 여행객이 겪게 되는 갖가지 어려움과 망신을 당하는 것을 줄이고 올바른 여행문화의 정착과 살아있는 여행정보의 교환을 위해 만들어진 모임이다. 지난 해부터 시작해 현재 2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물라서 겪어야 했던 황당함과 고행을 먼저 겪은 선배 배낭족, 그들이 배낭여행을 준비하고 있는 후배 배낭족에게만은 그런 난관을 겪지 않고 알차고 값진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정보도 제공하고 함께 모여서 목적지의 문화·제도·규칙 등을 교육시키기도 한다.

이 모임의 김지현(서양·서반아어 87, 94년 졸업)씨는 "알고 보면 그곳의 문화·문위기가 제대로 보이죠"라며 준비하고 떠나는 배낭여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외국에서 욕먹는 한국인 여행객이 더이상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 걸만 보고 사진만 찍는 관광이 아닌 진짜 유익한 여행문화를 위해 '외대배낭'을 만들게 됐다고 한다.

'외대배낭'은 여행지에서 적은 돈을 유익하고 알뜰하게 쓰는 법 등도 알려준다고 한다. 현재 회원들은 외대생들이 자신의 처지에 맞는 여행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여행사의 다양한 기획과 자료들도 모으고 있다. 관광이 아닌 열린 마음을 가지고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여행문화를 위해서 이러한 활동들은 긍정적을 비춰지고 있다.

이 모임은 지난 7일(월)-9일(수), 인문과학관 전시실에서 배낭여행 전시회 및 설명회를 열어 좋은 반응을 얻기도 했다. 현재 정식동아리로 인준받진 못했지만 오늘(22일) 동아리연합회 대표자회의를 통해 동아리 가인준이 논의될 예정이다.

<잠광표 기자>

평수당 明水堂

각인(刻印)보도와 한국여성

우리나라 언론이 안고 있는 문제가 많지만 그 중에서도 잘 드러나지 않는 심각한 문제가 여성에 대한 각인보도라고 생각한다.

각인보도란 매스컴에 의한 언어오용의 한 유형으로 영어로는 stereotyping (틀에박힌 표현)이라 한다. 곧 이는 어떤 범주나 계층에 속한 구성원간의 차이를 무시하고 모든 구성원을 똑같이 하나로 취급하는 언어사용의 잘못된 관행이다. 예를 들면 우리는 흔히 "여자는 여우다" 또는 "남자는 늑대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데 만일 이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지애스런 어머니는 여우가 되고 존경하는 아버지는 늑대가 된다는 웃지못할 모순에 부딪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언어각인이 매스컴에 의한 보도의 형태로 나타난다면 개인의 수준을 넘어 대중계층에 확산하게 되어 언어각인의 피해자와 가해자는 대량적으로 부차발하게 발생하게 된다는 점에서 문제는 심각해진다. 또한 언어각인은 현상을 각인함으로써 새로운 조형물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이 언어의 각인에서 현상의 각인으로, 다시 각인된 현상 그 자체로 이어지게 된다는 점에서 단순히 언어의 굴절된 오용이 아니라 현상 그 자체의 굴절문제로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언어각인으로 꿰하된 여성은 언어상의 이미지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여성의 실존문제로 되는 것이다.

언어각인은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는다. 다민족으로 구성된 미국과 같은 사회에서는 흑인과 같은 소수민족이 언어각인의 대상이 된다. 또 일본과 같은 사회에서는 역사적인 이유로 흘러들어간 한국교포들이 '조센징' 또는 '센징'으로 각인되어 엄청난 민족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예도 있다. 단일민족국가라고 하는 한국과 같은 사회인에서도 특정 지방출신 계층이 언어각인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여성에 대한 각인보도는 이미지 뿐 아니라 여성의 실존 자체를 폄하시킨다

김 정 기

<신방과 교수·정책과학대학 학장>

지난 여름 우리나라 언론은 한 여성장관에 대해 그 장관이 국회답변에서 손을 호주머니에 넣고 답변하는 모습을 아주 비판적인 문맥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여성에 대한 각인보도의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이는 행정부 장관 대 국회의원이라는 관계를 떠나 마치 여성은 남성들 앞에서 공손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고정관념을 언론이 대변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 경우 환경처 장관의 답변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남성에 대한 여성의 태도를 문제삼는 데서 여성에 대한 매체의 각인적 성차별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언론매체가 여성에 대한 각인보도를 함으로써 남성중심의 권위주의적이며 봉건적인 가치관을 온연 중 드러 낸 사례라고 해석할 수 있다.

얼마전 나는 영화 '엠마뉴엘 부인' 상영관에 3, 40대 주부들이 몰린다는 방송뉴스를 본 일이 있는데 이것도 주부 여성꿰하의 각인보도 사례일 것이다. 이는 주부는 오페 육아, 가정, 부엌일과 연결되는 존재라는 고정관념적 각인이 역으로 부각된 보도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성각인보도가 가져오는 사회적 피해는 심각하다. 피해의 직접 당사자는 물론 여성당사자들이다. 그러나 넓게 보면 여성차별이 반문명적인 폐습이며 남성위주의 봉건주의의 잔재라는 거시윤리적 인권유린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또한 좀더 실제적으로 보면 이는 우리사회의 발전에 절실하게 필요한 인력의 절반이 부당한 이유로 사장되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러한 각인보도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언론 스스로의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와 함께 각인보도를 모니터링하고 감시하는 시민언론 단체의 활동도 필요할 것이다.

북누리 말글살이

<15>너렁청하다

가. 확트이고 시원스럽게 넓다.

달포 동안의 출장에서 돌아오는 길인 안천주 교수는 언제나처럼 발자국 소리도 없이 조용히 집에 들어섰다. 너렁청한 전실에 앉아 무엇인가 골똘히 들여다보고 있던 안해는 밭쓰시 남편의 체취를 느끼고 얼른 일어서며 반겼다.

—소설 쇠뜨르레기 중 '삶의 향기'

<문화부>

유학·여행

후배 동문 여러분!
(주)한우리 여행사·아카데미는 외대인이 모여 이루어낸 해외 여행·유학 전문업체입니다.

1993년 11월
큰 도약을 기약하며 우리는 작은 한 걸음을 내 딛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작은 한 걸음이지만
후배 여러분과 더불어 성장해 나가는 「한우리」가 되겠습니다.

후배 동문 여러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아래의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Of the HUFSAN! By the HUFSAN! For the HUFSAN!"

함께 일할 참신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 호주 뉴질랜드 영어연수
■ 방학중 단기 영어연수 + 호주 뉴질랜드 자유여행
■ 프랑스 짐·단기 언어연수
■ 프랑스 국립대학·전문과정 (미용, 분장, 디자인등)편·입학 안내
■ 배낭여행전문 : 유럽, 오세아니아, 동남아, 일본등
■ 수학여행, 졸업여행 안내
■ 특수지역 언어연수 및 여행안내

(주)한우리여행사 (주)한우리아카데미
주소:서울·서초구 서초동 1306-3 한숍 B·D 6층 2호선 강남역 1번출구 한일생명2개월 6층
TEL 539-1133 代
TEL 501-2533 영어연수부 561-5954 불어연수부

(주)한우리여행사·아카데미는 믿을만한 모두의 것입니다
문의주시는 후배 여러분께 유학·해외여행 안내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司試·行試·外試·立法·7級

12·1월 基本 理論 특강 안내

효과적인 수험생활에서 시간 절약은 주마가편의 효과를 얻게 해 줍니다.

노량진, 대중교통이 가장 편리한 이곳에, 서울대학교 주변 고시촌의 유명한 교수님들을 모두 모셨습니다.

과 목	담 당	교 재
憲 法	김 ○ ○ 敎授	〈객관식 헌법〉 신영사
民 法	류 청 재 변호사	〈민법 Ⅰ.Ⅱ.Ⅲ.Ⅳ〉 저자직강
刑 法	이 관 ○ 敎授	이재상 저 〈형법총·각론〉
經 濟 學	洪 鍾 仁 敎授	어떤 교재로도 수강 가능
文 化 史	姜 正 植 敎授	〈세계문화사〉 저자직강
韓 國 史	姜 正 植 敎授	〈고시한국사〉 저자직강
情報體系論	金 永 喆 博士	〈정보체계론〉 저자직강
考試英語	朴 寒 鎬 敎授	〈정문고시영어〉 저자직강
行 政 法	徐 廷 ○ 博士	〈객관식 행정법〉 경세원
行 政 學	金 永 喆 博士	〈행정학 강의〉 저자직강
行 政 學	權 ○ ○ 敎授	〈행 정 학〉 고시학회
獨 逸 語	金 石 道 敎授	〈현대독일어〉 저자직강
地 方 行 政	고 상 ○ 敎授	〈지 방 행 정〉 저자직강
國 民 倫 理	노 재 명 敎授	〈정통국민윤리〉 저자직강

현대고시학원
노량진역 건너편 정진학원 뒤 대양학원 1층
☎ 826-0071~5

제16대 총여학생회선거 입후보자 소개

정 : 김은옥<사회·경제3>

73. 부산출생
92. 수원여고 졸
본교 경제학과 입학
학회 "한돌림" 활동
93. 5대 총여학생회 선전차장
94. 6대 총여학생회 부교육위원장
94. 7대 총여학생회장 입후보

부 : 김난영<서학·폴란드어 3>

73. 광주출생
92. 조대여고 졸
본교 폴란드어과 입학
동아리 "빛모슬" 활동
93. 5대 총여학생 연사부장
94. 기지촌활동 추진위원장
94. 7대 총여학생회부회장 입후보

1. 여학우들의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체계강화
2. 취업강좌 실시와 취업대책 모임 구성
3. 통일과 여성을 조망 해보는 강좌 추진
4. 영상학교, 음악회 등 각종 문화사업 추진
5. 다양한 복지 사업 강화

선거일 : 1994년 11월 23일(수)~24일(목)
장 소 : 교양관, 인사대, 신강의동 로비

제 16대 총여학생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문화 옹달샘

만화영화의 세계

새로운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는 애니메이션을 관객들과 더 가깝게 하고 한국 애니메이션의 전반을 훑어보며 그 미래를 모색해보고자 '영상연구회'와 소극장 '오늘'이 공동기획한 행사이다.

만화영화 감상, 강좌, 창작가이드, 포럼이 어우러지 관객을 단순한 관람자가 아닌 적극적으로 제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이 행사의 의의가 있다.

평소에 비교적 쉽게 접할 수 있었던 미국과 일본의 장편 만화영화와 다양한 기법과 실험정신을 바탕으로 제작된 단편들을 감상함으로써 만화영화를 신선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일시 : 12월 4일(일)까지
평일 오후 4, 6, 8시
주말 오후 3, 5, 7시
장소 : 대학로 소극장 '오늘'
문의 : 763-8538

딸의 침묵

극단 '서울 부대미술'은 현대사회의 부조리한 성도덕을 고발하고 나아가 건전한 가정문화의 제정립을 위해 봄 토퍼 원작 '딸의 침묵'을 무대에 올린다.

이 작품은 서구화의 폐해인 가족의 핵분열화와 성도덕의 타락 등으로 인해 사회에서 가장 보호받아야 할 어린이가 얼마나 생의 굴곡을 겪어야 하는지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무너져가는 도덕성에 경종을 울리는 이 연극은 현대인으로 하여금 한번 더 자신의 뒤를 돌아보게 하는 작품이 될 것이다.

일시 : 12월 4일(일)까지 (월요일은 쉼)
오후 4시 30분, 7시 30분
장소 : 동숭아트센터 소극장
문의 : 766-1673, 741-3391

동유럽에서의 계급투쟁

—크리스 히먼 지음
—김형주 옮김

1945년부터 1963년까지 동유럽에서 스탈린주의 관료 정권에 대항하는 노동자계급의 투쟁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역사서이다.

특히 마르크스주의의 계급론과 혁명이론을 통유럽 사회 전반에 적용하여 소련이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라 '국가자본주의 사회'라는 토니 클리프의 분석을 일반적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지난 40여년간 동유럽 사회에서 전개된 온 여러 사태들이 국가자본주의의 산물임을 책의 내용을 통해 읽어낼 수 있다.

(길무리 · 1만 2천원)

통일문화를 향한 몸짓

두 개의 '유리방'에 갇힌 남북미술

1. 문화의 이질화, 극복의 몸짓
2. 분단 미술, 통일 미술
3. 분단시대의 문학

1995년은 분단된 지 50년이 되는 해이다. 50년간 헤어져 살았다는 사실, 그 세월의 깊이 같은 것들이 그렇게 만만한 것은 아닐 것이다.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는 방향에서, 더구나 이데올로기라는 지극히 인위적인 개념에 의해 생겨난 분단이라면 더욱 심각한 지경일 것이다.

해방이라는 용어가 풍기는 '경쾌' 분위기와 분단이라는 용어가 담고 있는 짙은 '슬픔'이 교차하게 되는 1995년, 남북한 미술은 어떤 모습으로 자리하고 있는가?

문학예술이라는 것이 사회적 의식의 반영인지라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다른 체제속에서 50년을 달구어 온 미술모습 또한 판이할 수밖에 없다. 그 자체로 남과 북의 미술은 서로의 체제 성격에 충실하게 복무해왔다. 하지만 '충실했다'는 말 자체로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1945년, 미군정의 등장과 38선의 확정은 하나였던 미술을 두개로 가름하는 지점이 되었다.

남쪽의 미술은 우선 기나긴 아카데미즘의 굴레에서 벗어날 조건을 마련했다. 일제시대 선전의 부역에서 벗어나는 댓가로 현실에 대한 개입의 가능성을 철저하게 차단당하게 된 것이다. 동란을 거치면서 미문화원을 교두보로 쏟아부어진 미국모더니즘(앙포르멜-뜨거운 추상)의 충격은 이후 남한 미술의 방향을 가름하는 출발점이 되었다. 남한 미술계는 일제시대로부터 보장받은 아카데믹한 사상미학 소유자들이 장악하고 있었고 모더니즘은 이들과의 한판 전투를 예정하고 있었다.

그 싸움의 핵심은 바로 형식미학이었다. 실패한 반민특위 덕분에 여전히 미술계를 장악하고 있었던 친일미술가들과 세계성이라는 용어로 무장한 미국식 사고방식의 선전미술가들은 정작 '우리 것', '민족적'인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이었다. 철학과 사회적 토대가 전무한 상태에서 모더니즘은 남한 미술의 주도적 흐름으로 자리잡았다.

이에 비해 북한 미술은 어떠한가. 철저하게 인민중심적인 미술, 철저하게 사회주의 건설의 선전무대로서의 미술을 중심과제로 설정한 대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인민성, 계급성, 당파성 등의 중심개념이 이들 체제의 미술적 기치판단의 잣대로 작용한다. 사상미학적으로는 정통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표방하고, 여기에 민족적 형식을 가미하는 방향으로 북한의 미술은 가닥을 잡아나가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미술요소들이 이데올로기라는 잣대로 폐기와 계승의 버팀으로 내몰렸다. 사대복고적이라는 이유로, 인민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로 많은 문화유산적 제부가 폐기되었다. 이런 폐기와 계승의 갈림길을 거치면서 이른바 주체의 문예이론은 탄생하였고 그것이 제도숨을 찾아갈 무렵인 70년대 후반부터 북한미술은 비교적 정형화된 틀을 보여주고 있다. 혁명전통을 교양하는 내용, 사회주의 건설을 고무·추동하는 내용, 조국산천의 아름다움을 선전하는 내용 등이 북한 미술의 주도적 내용과 형식으로 자리잡는다.

남쪽의 시각으로 북한미술은 바라볼 때 19세기 리얼리즘이라는 낡은 창작방법론을 고수하면서 예술을 목적화했다는 비판이 가능할 것이다. 북쪽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남쪽의 미술이라는 것은 형식미학의 관념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자본의 노예가 된 해악적인 조형유희로 보일지도 모른다.

미술동네의 상황을 치유하는 데도 적어도 헤어져 산 만큼의 세월은 필요할 것이다. 문제는 현재와 같이 철저히 정보가 차단된 상황에서 이글과 같은 경우도 북한미술에 대한 '추측'을 할 수 밖에 없다는 한계이다. 우선 남북한 미술가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미술개방'이 이루어져야 한다. 민간차원의 자주적 교류는 1989년 대하결개그림 '민족해방운동사'의 평양측전 참가로 시작되었다. 물론 많은 미술가들이 욱고를 치루어야했지만, 1993년 일본에서의 '코리아 통일미술전'에 이르기까지 살얼음을 걷는 것 같은 교류는 있었지만 이것으로 남북한 미술을 파악할 수 없다.

엄선된 일부의 작품으로 눈요기를 할 경우 오히려 오해와 예단을 부추길 뿐이다. 이질감을 찾는 작업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지난 50년간 우리는 이질성을 부각시키는데 편집광적으로 집중했지 않았는가? 그것으로 충분하다. 서로의 미술과 체제를 인정하는 열린마음이 아니면 동질성은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권 상 식<미술평론가·화가>

외대인이 외대인에게

—임재권(인문 · 철학 4)군이 소개하는 책
'나의 교단'

'참교사'의 상을 제시해 주는 잔잔한 빛깔의 소설

누구나 국민학교 때의 '선생님'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어머니 같기도 하고 아버지같기도 했던 자상한 모습부터 아직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심했던 화난 모습등 좋지 않은 기억들까지….

우리가 접하기 힘든 북한 주민들의 삶을 잔잔하게 그린 북한소설 '나의 교단'은 이런 여러 선생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참교사의 상을 제시하고 있다.

'정말 이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헌신적인 주인공 현인순 선생의 교사로서의 노력을 보며 '소설이니까', '미화가 심하다' 등으로 간단히 넘어갈 수 없는 것이 이 책의 매력이다. 너무나 구체적이어서 현실감이 넘치고 너무나 인간적이어서 마음의 평안을 주체하기 힘들다. 이 감동은 '그런 교사의 모습도 가능하다'에서 '그렇지, 그렇구나'라는 긍정을 넘어 '맞아, 선생님이라면 누구나 이래야지, 그래야 교육이지'라는 결론에 이르게 한다.

교육이라고 하면 적어도 어떤 사람이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도록 하는것, 지기 삶과 운명을 책임지는 인격체가 되게 하는 것이지 않는가.

때문에 나는 사범대나 교직과정에 있는 외대인이면 우선 이 책을 권하고 싶다. 외대출신 교사는 경쟁위주로, 참교육을 모른채 교단에 서지 않기를 바란다.

다음으로 이책은 자기보다는 남을 위하는 이타심을 진한 감동으로 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남에게 봉사하는 삶에서 자신의 존재가치를 찾고 보람을 느끼는 사람들의 모습을 '아름답다'고 밖에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울 정도다.

□ 학내 노래패의 '바로섬'을 위해

길들여지기를 거부한다 나는 새세대 개척자

'솔직한 모습으로'—올해 '백박가요제'에 발표된 창작곡이다. '동지에게', '참된 봄을 부르며', '꽃씨' 등 예전의 노래패들이 창작한 노래와는 다소 다른 모습이다.

가요제의 평가는 학내노래패의 평가로 이어진다. 각 과와 단대 그리고 동아리까지 학내 모임중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학생들의 참여가 가장 활발한 소모임이 노래패로, 학생들의 인식과 정서가 가장 잘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과 노래패 '풋잣춘마디'에 있는 임현종(동양 · 중국어1) 군은 "예전의 선배들의 시각에서는 80년대의 독재정권하에서 대학생활을 해서 '단결투쟁가' 나 '진짜 노동자' 같은 걷단을 요구하는 노래가 '나의 노래'로 느껴지셨겠지만 저희는 감동은 믿어도 공감하기는 어렵거든요"라며 민중가요만을 고집하는 가요제가 아니라 다양한 내용의 노래로 참가할 수 있는 참여의 폭이 넓어진 것 같다고 한다.

한편 동아리 '해부리'의 이유나(서학 · 독어 4)양은 "노래패 들이 신입회원이 없다보니 민중가요가 부엌이고 올바른 노래문화가 부엌인지를 신입생들에게 심어주기 보다는 민중가요는 운동권 노래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부조건적으로 피하는 신입생들의 취향에 맞춰서 변화되는것 같아요. 심지어 '민중가요는 안부를'이라는 말로 회원 수 늘리기에만 급급해하는 바로 위 학번의 선배들의 잘못이 크다고 봐요. 민중가요가 바로 우리의 생활을 노래하는 가장 친근한 노래잖아요"라며 '해부리'는 지난 21일(월)부터 24일(목)까지 있을 '10주년기념공연'에서 학내 유행하는 대중가요 속에서 우리의 노래찾기를 하면서 민중가요와 대중가요의 이질감을 해소하고, 지금까지의 민중가요 역사를 되짚어보면서 그 의의를 학생들과 함께 인식하고자 한다고 한다.

90년대에 들어서면서 80년대의 비장한 노래에서 벗어나 밝고 희망찬 가사와 리듬으로 학생들의 정서에 맞춰 민중가요도 자기변신을 조금씩 해왔다. 학생들이 쏙넓게 좋아하는 '우리 학생회', '새세대 청춘송가' 등이 그러한 노래다. 그러나 여전히 '나의 노래'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이러한 노래들이 학생들의 정서를 담아내는 데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역시 얼마나 많은 대중이 공감하는 노래냐이다. 따라서 대중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민중가요라는 단어에서 오는 거부감의 해소는 선배들의 중요한 역할이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노래패의 좁더 '진보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학내 노래패들이 진정으로 해야할 역할은 자신의 정서에 맞지 않다고 민중가요에 등을 돌릴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시대의 정서를 담아 학생들이 즐겨 부를 수있는 노래를 먼저 고민하고 창작하면서 올바른 노래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문화부 ·

문 · 화 · 단 · 신

서 울

사대 풍물패 한솔밥, 정기공연 '교육이데아'

사범대 풍물패 한솔밥은 제3회 정기공연 '교육이데아'를 지난 16일(수)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공동창작극 양식을 띤 이번 공연은 최근 논란이 됐은 '교육시장개방', '사대통폐합'의 문제성을 주제로 열렸다.

그림촌, 정기 가을 전시회

미술동아리 '그림촌'이 제46회 정기 가을전시회를 14일(월)부터 19일(토)까지 본관 1층 교수회의실에서 가진다.

이번 전시회는 재학생 작품과 함께 선배 · 교수들의 찬조작품 등 총 30여점이 전시됐다.

광고연합동아리 애드라인, 광고제 가져

서울캠퍼스 광고연합동아리 '애드라인'은 지난 14일(월)과 15일(화) 이틀간 광고영화 상영과 초청강연 등 광고제를 열었다.

이번 광고제를 준비한 김형주(서양 · 서반아어) 군은 "아직 정식 동아리 등록이 되지 않아 불편한 점이 많았지만 광고 환경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기회를 열어 기쁘다"고 말했다.

목요음악반, 정기음악회 열어

동아리 '목요음악반'은 지난 15일(화) 대강당에서 제22회 정기음악회를 가졌다. 1부와 2부로 나뉜 공연에서 1부에는 발레음악을, 2부에는 피아노 독주와 가요 등을 선보였다.

서우회, 제7회 서우회전 개최

서예 동아리 서우회는 지난 16일(화)부터 19일(토)까지 대학원 소강당에서 제7회 서우회전을 가졌다.

서우회 회장 도학용(동양 · 이란어 3) 군은 "이번 행사를 통해 회원들간의 유대감을 공고히 하고 학생들에게는 서예작품을 접할 수 있는 자리로 남았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일본어과 그루터기, 제3회 정기공연

일본어과 노래패 '그루터기'가 지난 14일(월) '94 사랑노트와 우리들의 이야기'란 주제로 제3회 정기공연을 가졌다.

곡 사이에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독특한 형식으로 꾸며진 공연을 준비한 노래패장 양성진(동양 · 일본어 2) 군은 "부족임한 학교측의 행정처리로 공연장소를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지만, 우리가 알리고 싶은 내용을 쉽게 전할 수 있는 공연을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신방과, 보도사진전 '서울' 개최

신문방송학과 보도사진부는 제8회 보도사진전 '서울'을 열었다. 지난 14일(월)부터 19일(토)까지 전시실에서 진행된 이번 사진전은 서울안에서 살고있는 시민들의 각기 다양한 모습을 담은 작품들이 선보였다.

용 인

하얀공간, 추계 정기미전 개최

미술동아리 '하얀공간'은 지난 14일(월)부터 18일(금)까지 학생회관 전시실에서 추계정기미전을 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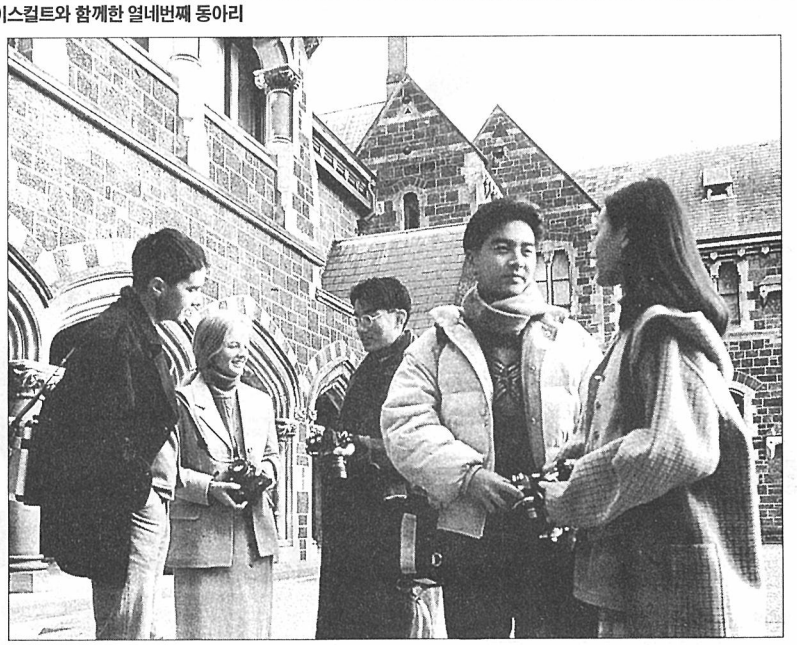
인물화와 추상화, 풍경화 등 다양한 주제가 파스텔화와 유화로 표현된 이번 미전은 특히, 지도를 담당한 김광요교수(독일어과)의 '1994년 8월 15일 통일의 염원'이 찬조 작품으로 출품돼 눈길을 끌었다.

서반아어과 원어노래반, 라틴음악 발표제

서반아어과 원어노래반 'Los Jóvenes'가 지난 19일(토) 어린이회관에서 '라틴음악 발표제'를 열었다.

세계민속예술축전 등 학교의 대내외적인 행사마다 기량을 발휘해 온 서어과 원어노래반은 이번 무대에서 라틴계의 독특한 리듬을 가진 노래들을 선보였다.

체이스컬트와 함께한 열네번째 동아리



외국어대학교 사진동아리 「누리에」

온세상 그대로를 사진에 담고싶다.

한장의 정직한 사진을 위해 정직하게 노력한다.

카메라를 들고 나서는 그들에겐 온누리가 피사체이다.

외국어대학교 사진 동아리 「누리에」—

보이는 그대로, 느끼는 그대로의 세상을 정직하게

필름에 담아, 보는 사람 모두에게 감동을 주는 사진을

찍고싶은 것이 그들의 공통된 바램이다.

맑은 공기와 흙냄새까지도 전하게 느낄 수 있는 사진,

그들이 끊임없이 새로운 경험,

새로운 세계를 찾아 먼 길을 재촉하는 것도

이런 한 장의 여운이 있고 깊이가 있는 사진,

정직함이 충만한 사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이다.

그런 사진 역시 정직한 노력의 결과임을 그들은 잘 알고 있다.

외국어대학교 사진동아리 「누리에」
동아리 이름에서부터 온세상을 통째로 카메라에 담아버리겠다는
호기로움이 느껴지는 투심파운 젊은이들의 모임이다.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한 장의 사진을 위해서라면
어디로든지 달려갈 수 있는 정열과 사진에 대한 사랑이 자못 뜨겁다.

정직한 젊은이들을 위한 옷—
CHASECULT
THE SOFT TRADITIONAL
체이스컬트는 카타로그 모델에 관심이 있는 대학 서클이나 학과는 체이스컬트에 전에 미리 밝혀 있는 신청양식에 신청해 주십시오.

□잎담배 수매관련 담배인삼공사의 공문서 위조사건

'엽연초생산자조합'의 직원이 담배인삼공사의 격려금으로 월급을 받는등 종속성이 심각하고, 잎담배등급 판정시 좋은등급을 받기위한 농민들의 뒷돈거래가 성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어제 21일(월)에는 대전역에서 전국 담배생산농 천여명이 모여 또다시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담배인삼공사에 대한 불만 극에 달해

양담배 판매수익 1천2백억원 불구 수매가 동결

조합의 공사종속성등 구조적 모순 산재

잎담배 수매가가 공문서 위조를 통해 비밀리에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동결돼 담배생산농의 불만이 높아가고 있다.

9월 29일(목) 부터 14일간 엽연초생산조합중앙회에서 장기농성에 들어갔던 '잎담배생산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지난 10월 12일(수) 담배제배농민 2천5백여명과 함께 신탄진에 있는 담배인삼공사 정문에서 잎담배 생산원 보장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가졌다.

언론의 무관심 속에 진행된 이날 집회에서 농민 35명이 연행되고 10명의 대회지도부가 수배됐다. 또한 해산과정에서 경찰의 무리한 최류탄 난사로 공사측 기물과 차량 53대가 훼손됐다. 이에 공사측에서는 피해물품 전액인 7천 5백여 만원의 손해배상을 위해 농민 13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등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해 담배인삼공사에서 양담배 판매로 벌어들인 돈은 약 1천2백억원에 달했다. 또한 올초 '88라이트'를 비롯한 국산담배들의 가격을 한꺼번에 평균 15% 인상했다.

그런데 올해 잎담배 수매가 격은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동결되었다. 이에 대해 담배인삼공사측은 "우리나라의 수매가는 다른나라에 비해 월등하며(수십배), 수매가격 책정에 있어서 엽연초생산자조합과의 협상을 통해 공정하게 이루어졌다" 라고 밝히고 있지만 사태의 추이를 살펴보면 이러한 말은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다.

먼저 올해부터 실행된 '수매가 예시제'에서 나타난 모순이 농민불만의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다. 수매가예시제란 년초, 조합과 공사측이 계약(담배는 담배인삼공사 측과 사전계약을 통해서만 재배가 가능)을 할때 수매가격을 결정하는 것인데 조합이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수매가격을 동결하고서도 농민들의 반발이 무서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다. 비대위 위원장 이재호씨는 "경작면적 및 수매물량을 배정받은 사실은 있으나 수매가격까지 포함된 계약서에 도장을 찍힌 적은 사실은 전혀 없으며 이러한 내용의 계약서는 공문서 위조이다" 라며 수매가 동결은 무효임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 외에도 담배인삼공사와 생산농가 사이에서 경작계약, 수매물량배정, 수매가격책정 등의 중간자 역할을 하고 있는 '엽연초생산자 조합'에 구조적 모순이 존재한다고 농민들은 주장하고 있다. '엽연초생산자조합'은 국내조합중 유일하게 간선제로 조합장을 뽑게 되어있고, 조합에서 일하는 직원이 담배인삼공사에서 나오는 격려금으로 월급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합의 비지주성 외에도 잎담배 수매시 등급관정에 있어 커다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잎담배 수매시 5단계로 등급을 매겨 수매를 하고 있는데 등급간 격차가 커(kg당 1등급—6천 3십원, 5등급—1천 9백8십원 93년 기준) 좋은 등급을 받기위한 농민들의 뒷돈 거래가 성행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 농민측의 이야기다. 이씨는 "등급의 결정에 따라 수천만원이 왔다갔다 한다. 어떤지역은 등급별로 뒷돈 액수가 정해져 있다" 고 얘기한다. 또한 "담배생산시에는 등급에 별 구분없이 담배생산을 하면서 수매시에는 5단계나 구분하는 것은 농민들을 담배인삼공사에 예속시키려는 의도이다" 라며 "내년 등급관정에 혹시 해를 입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이번 투쟁에 주저하는 농민들도 있다" 라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10월 5일(수) 부터 시작하려던 잎담배 수매가 농민들의 불만과 수매물량으로 거부되다가 조합측이 "5% 수매가 인상, 생산장려금 4.5% 지급안이 공사측에서 비공식적으로 받아들여 졌다" 라는 말을 유포하면서 10월 20일(목) 경부터 전국에서 수매에 들입했으나 수매등급 시비와 수매 물용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담배인삼공사측에서 집회주동자에 대해 수매대금을 지불하지 않을 방침을 내림으로써 사태는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신동헌 기자>

서울시장, 원진합의서 계속묵살

지난해 11월 9일 원진레이온(주) 폐업과 관련하여 노·사·정이 합의한 내용을 최병렬 현 서울시장이 이를 묵살하고 있어 '원진레이온 비상대책위'의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합의서의 내용은 첫째 직업병환자의 치료대책으로 종합병원급의 산재병원을 설립하고, 갑작스럽게 실업자가 된 6백여명의 노동자들을 정부투자기관에 재취업 시키겠다고 되어있다. 또한 합의서 후속조치로 지난해 11월 24일 국무회의를 통해 제2기 지하철공사시 이들 노동자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기로 확정했다. 하지만 올해 이러한 약속들이 잘 지켜지지 않자 원진레이온 노동자들은 국무회의 심의의결사항인 재취업약속을 촉구하는 집회를 3월 12일 부터 11차례 개최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장은 '섬유노동자들을 지하철공사에 투입할경우 작업능률이 저하된다'며 의결사항을 이행하지않고 있다.

80.9% 농민, 추곡수매가 불만

UR협상으로 쌀생산농가의 영농의욕이 계속 저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수매가를 작년수준으로 동결, 950만섬 수매' 라는 방침은 농민들의 요구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있음이 '전국농민단체농정감시회'에서 실시한 농민여론조사 결과 밝혀졌다.

정부의 쌀정책에 대해 80.9%의 농민이 "물가안정을 내세워 추곡가 인상억제등 농민의 희생만을 강요한다" 라고 답했고 7.9%만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정부에서 결정하고 있는 추곡수매가가 쌀생산비를 보장했는지의 질문에 대해 "별로 보장하지 못함" (44.9%) 과 "거의 보장하지 못함" (34.4%) 에 79%의 농민이 답을 했다.

이러한 여론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전국농민단체농정감시회' 에서는 수매가 8.1%인상과 1천2백만섬수매를 정부에 요구했다.

전북산대 · 전주대 부정선거 물의

전북산업대 총학생회선거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부정선거의 의혹으로 먼저 투표용지에 일련번호가 적혀있지 않으며 투표함 봉함은 원칙적으로 한지로 틀칠을 하고 도장을 찍은뒤 열쇠까지 마찬가지로 해야하나 바꿔치기가 가능한 테이프로 봉하였다.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선거다음날 기호 2번, 3번 후보의 참관인들이 이의 제기를 하자 오후 7시경 참관인 동의없이 선관위에서 투표용지를 찢어버린 점이다.

한편 전주대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총학선거에 앞서 치뢰진 총대의원선거(간접선거) 에 당선된 기호 1번 김범수, 권기범 후보측이 여관을 장기계약하고 유권자들을 불러 술을 대접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관에 있던 상당수가 선관위 원들이어서 커다란 물의를 빚고 있다. 전주대학교 언론협의회 소속 각 언론사들은 기존의 간접선거가 여러모로 문제가 많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공동대응으로 이문제를 철저히 짚고 넘어가기로 했다.

간첩사건들에 계속되는 조작의혹

지난 10월 28일 베를린에서 백홍용씨가 "김삼석 · 김은주남매 간첩사건이 자신의 프락치활동에 따른 안기부의 조작이었다" 라고 양심선언을 한후 국내 간첩단사건들의 조작성 여부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16일에는 지난 80년 발생한 제일동포 연루 일가족 간첩사건의 관련자들이 부산지법에 재심청구를 했다. 천주교 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부산가톨릭센터 2층에서 기자회견을갖고 신귀영(58, 천주교도소 수감중, 15년형), 신춘석(57, 10년 복역 뒤 만기출소) 씨와 15년형이 확정돼 수감중 숨진 서성철씨 등 일가족 3명이 연루된 간첩사건에 대해 "일본 현지조사 등 재조사를 한 결과 조작 가능성이 매우높다는 결론이 나왔으며 객관적인 증거자료조차 없이 수사기관에서의 고문을 통한 자백을 근거로 엄청난 중형을 선고했다" 고 주장했다.

한편 본지에서도 많은 의혹점을 제시했고 지금까지도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구국전위'사건 결심공판에서 서울지검 공안1부 신종대검사는 18일 안재구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지난 19일(토) 에는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주최의 '12·12반란주범사법처리촉구 시민대회'가 탑골공원에서 있었다.

□생존위협받는휘경시장상인들의시연

내쫓기는 30년간 삶의 터전

서울시 재래식 시장 2백 60개 분규중

지난 11월 11일(금) 에는 본교 서울캠퍼스앞을 지나는 한 시위대가 있었다. 시위대가 입고 있는 빨간색조끼에는 '생존권 사수'라는 구호가 적혀 있었고, 평화로운 거리에 갑자기 나타나 구호로 외치는 시대에 놀란 학생들은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이를 지켜보았다.

바로 이들은 본교에서 두정거장 거리에 있는 휘경시장의 상인들이다.

92년 5월 휘경시장 상인들에게 난데없이 시장을 떠나라는 소송장이 날아든 것이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87년 민정당 재정위원이었고, 정경유착의 대표적 인물이었던 이용두란 사람이 불법적으로 시장건물을 담보로 잡히고 한일은행으로부터 105억이라는 돈을 대출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다가 부도를 내고 사망한데서 시작된다. 은행은 88년에 건물을 경매에 부쳤는데, 상인들이 돈을 모아 경매에 참가하려 하자 전경들로 하여 시장민들의 출입을 막고 뒷문으로 경매브로커들이 들여와 경매를 해 김종규란 인물에게 30억원에 낙찰이 되었다.

그 후 그는 건물주로서 해야 할 건물관리는 신경을 쓰지 않고 방치해 두다가 21개월후 갑작스럽게 임대료와 세금 19억원을 지불하고 나가란 소송장을 보내왔다. 재판이 시작되고 21개월에서 40개월이 된 지금은 5억원의 보증금도 빼앗긴채 얼굴한번 보지 못한 김종규란 인물에게 46억원을 지불해야 하는 처지이고, 점포와 집도 모두 가압류된 상황이다.

"이젠 희망도 사라졌고 살고 싶은 의욕도 없습니다. 집까지 빼앗기고 거리에서 죽으나 끝까지 버티다 죽으나 마찬가지니 공권력과 가진자의 횡포에 결사적으로 싸울 것이다." 노래방을 하는 상인회회장 최금석씨의 말씀이다.

서울시의 재래식시장 3백60개중 2백60개가 분규중이라고 한다.

다른 재래식시장처럼 "제개발하겠다" 라는 식의 상인과 주인간의 엇권싸움이 아닌 '내쫓지만 말아달라' 는 처절한 휘경시장 상인들의 절규를 들으면서 30년의 터전이 하루아침에 '불법점거자'가 되어 쫓겨나게 될 상인들을 보며 우리사회에서 약육강식의 논리가 판치고 있는 한국사회의 단면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박종선 기자>

기고산의 눈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개표가 시작된 지 1시간이 지나자 기호 1번을 지지하던 학생들의 표정은 무거워지고 약 30분이 지나 개표장은 기호 2번을 지지하는 학생들의 기쁨의 환호성으로 가득했다. 개표과정을 보고있던 일반 학생들은 "처음부터 벌어지는 표차가 적지 않아서, 그래도 혹시나 했는데 …" 라며 조금씩 흥분을 가라앉혔다.

낙선된 후보의 "총학생회장이 누구이건 간에 왕산을 사랑하는 이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기 나온 여러분이 왕산발전의 주인입니다" 라는 인사가 끝나고 강당 밖으로 나온 1번을 지지하던 선거원들은 목이 메인 목소리지만 힘차게 '한충원 전군가'를 불렀다.

지난 11월10일(목) 부터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 용인캠퍼스의 제 16대 총학생회 선거분위기는 왕산에 단풍들 듯 그렇게 빨리 퍼져 17일(목) 자연대 강당에서의 개표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어느해 보다 공약에 관심이 모였다. 많은 내용의 세세한 공약들은 그동안 학생들의 요구가 얼마나 쌓여왔는 가를 알 수 있다. 이에 양측 후보는 학생대중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노력을 공약으로 나타낸 것이다. 공약을 보면 실상 '학내 전산망 도입, 도서관 문제, 교통문제' 등 공통된 내용이 적지않게 나타난다. 결국은 학원 지주화를 이루려는 모습들이다. "당선된 기호 2번의 공약을 보면 1백 60개나 되는 공약을 과연 지킬 수 있을까하는 의문보다 지금까지 불편한 생활환경 속에서 불만을 느끼던 나의 이야기를 담은 것같아 오히려 반가왔다" 라는 이제원(서학 · 항가리어3) 군은 "하지만 학원자주화도 중요하나 사회민주화를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라며 사회민주화 노력이 병행되야 함을 강조했다.

학생회는 체전이나 대동제를 기획하는 기획사도 아니고 투쟁사업만 전행하는 투쟁체도 아니며 복지, 교통 문제만을 고민하는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도 아니다. 위의 내용을 추진해 나가며 학우들을 이끄는 생활 · 학문 · 투쟁의 공동체인 것이다.

"이번의 선거결과를 전화위복으로 삼아 진정 왕산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학생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부총학생회장 김기우(서학 · 제로 4) 군은 "제16대 학생회가 학우들과 함께 왕산발전에 힘쓰고 계속해서 시대를 동지시 않는 학생회로 나아가기를 바란다" 고 덧붙였다.

<이승호 기자>

고객과 함께 세계로 미래로—삼성

마이레이저가 나온 뒤 대학가 신풍속도 - ③

프린터집 아저씨가 파리만 잡는다?

리포트 철이 오면 레이저프린트 붐이 일고,
레이저프린터가 있는 학교앞 프린터집은 문전성시!
이루었다.
깨끗하게 뽑아서 제출하니까 교수님께 성의도 보일 수 있고, 그만큼 점수도 잘 따게 마련이니까…
그런데 언제 부턴가 삼성 마이레이저를 뽑는 친구들이 하나 둘씩 늘면서 그 붐비던 레이저프린터집도 한산해지기 시작했다. 주인 아저씨는 파리만 날리는지 왔다리 갔다리 하품만 하시고…
하기야 싼돈이인 나까지 그만한 가격이면 투자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결론에 나오자마자 마이레이저를 샀으니…
레이저로 쓰니까 그림도 가는 선도 모두 또렷또렷,
초스피드 — 게다가 호환성까지 완벽!
먼지고 흐리고 들떠보이는
잉크젯프린터와는 그 차원이 달랐다.
프린터집 아저씨한테는 고약한
녀석일지 모르나, 우리에게 있어서
마이레이저는 둘도 없는
복덩어리이다.

더욱 새로워진 삼성마이레이저 SLB-3105V+의 3대 기능혁신

혁신 1 속도개선 : PCL 4.5 새롭으로 DOS, WINDOWS상에서 50~100% 속도 향상

혁신 2 원터치 줄 기능 : B4 → A4(80%)축소, B5 → A4(120%)확대 등을 원터치로 해결

혁신 3 그린기능 : 프린터 대기시 30W의 최소전력으로 자동조절! 최소 150W의 불필요한 전력낭비를 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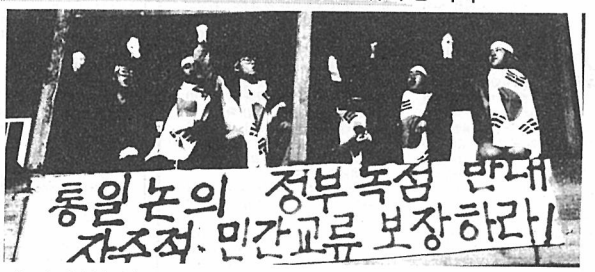
전화 한통화면 업그레이드가 간단히!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및 프린터, PC대리점에 전화로 접수만 하십시오.
서비스요원이 즉시 방문, 롬키트 설치로 간단히 업그레이드를 해드립니다.
설치비 : ₩10,000

C&C COMPUTERS AND COMMUNICATIONS

SAMSUNG 삼성전자

통일조국을 만드는 학생 청년학생 자주교류 투쟁 약사



탄압에도 자주교류 횃불되어 철조망을 녹인다

88년 6·10 회담 성사 투쟁, 통일운동 활성화 계기

1989년 6월 29일, 가랑비가 내리는 지정 한양대, 임종석 제3기 전대협의장의 떨리는 목소리, "임수경 학우는 6월 21일 서울을 출발하여 동경에 도착하고 28일 동경을 출발하여 29일 베를린에 도착하였으며 29일 11시 현재 동베를린에서 평양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평양에서 열린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축전) 참가 불허방침을 규탄하기 위해 철통같은 원천봉쇄망을 뚫고 모인 6천여명의 학생들은 기대하지 않았던 소식에 환호성을 질렀다. 통일운동에 관심이 있었던 80년대 후반 학번들은 이때를 가장 감격스러운 순간으로 꼽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통일운동의 봇물, 남북학생회담 성사투쟁

남북 학생회담의 역사는 196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4·19혁명 이후 '민족통일조국학생연맹'을 건설하고 학생들은 남북청년학생회담을 제의하기도 했다. 지금은 50대 후반이 되었을 당시의 학생들은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를 외쳤지만 그 목소리는 그리 크지 않았다.

그리고 90년대이 흐른 후 다시 만남의 욕구가 솟아올랐다. 88년 3월,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 선거 유세에서 김중기 후보가 남북학생 국토종단순례대행진과 청년학생 체육대회를 개최할 것과 이를 위한 예비회담을 판문점에서 열 것을 제안했다.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에서 김중기군의 제안을 수용하여 전국적인 차원에서 추진할 것을 결의한다. 각 대학마다 통일운동과 남북학생회담 성사투쟁을 발일 조직으로 '조국의 평화와 자주적 통일을 위한 특별위원회(조통 특위)'를 조직하고 전대협 산하에는 '평화통일학생추진위원회(평학추)'를 건설한다. 각계각층의 지지와 지원 속에 남북청년학생실무회담이 6월 10일 판문점에서 열리기로 됐으나 노태우 정권은 이를 '이적단체 구성원과의 회합, 통신'으로 규정, 회담을 불허하고 회담대표들을 검거하기에 온힘(?)을 쏟았다. 명분은 '국가보안법'과 '창구단일화'.

정권의 거센 탄압은 6·10실무회담을 중도하차하게 만들었지만 청년학생들에게 패배감을 안겨주기보다는 통일의지를 더욱 더 굳건하게 다지는 계기였다. 기만적인 7·7선언에도 불구하고 남과 북, 해외동포들의 적극적 지지, 군인들의 6·10회담지지 탈영사건 등은 다시 8월 15일 8·15실무회담을 추진하게 만들었다. 이에 앞서 9일에서 15일 사이에는 국토종단순례대행진을 강행, 한라산 기슭부터 시작해 전국 방방곡곡에 통일의 불을 질렀다. 그러나 8·15회담은 정권이 연세대에서 관문점으로 향하는 통일의 대열을 무차별 폭행, 연행함으로써 남북학생회담은 일단 막을 내리게 된다.

비록 결실을 맺지는 못했지만 이 통일무장은 87년 대통령 선거 패배 이후의 상처를 극복하게 했으며 통일운동에 불을 지르고 전대협을 강화시킨 성과를 남겼다.

직접적 자주교류, 축전참가투쟁

88년 조선대를 비롯, 이대와 경희대 총학생회장 선거에 전대협 대표의 축전참가가 공약으로 나온 후 12월, 북한의 조선학생위원회 명의의 초청장이 발송되었고 드디어 참가를 결의한다. 당시의 상황에서 노정권의 창구단일화 논리를 깨기 위해, 북한 학생들과 한민족 임을 느끼기 위한 '만남'은 절실했다. 축전참가 투쟁은 자주적 교류를 성사시켰다는 커다란 의의에도 불구하고 학생들과 국민대중을 충분히 이해시키지 못한 돌출적인 참가로 대중을 '관객'으로 만드는 오류를 남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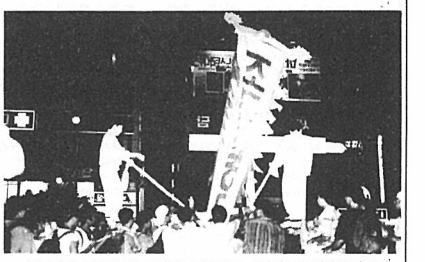
분단의 장벽을 넘어, 넘어

7·7선언 이후 노태우 정권은 대북창구를 독점하고 통일논의를 정권의 안정화에 이용하려 했으나 평양축전 참가 이후 문화·학술분야 등 각계로 자주교류투쟁은 번져나갔다. 전대협은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학생추진 위원회'를 건설하고 청년학생의 지속적인 교류투쟁을 전개했다. '1천개학과 교류투쟁'도 이의 일환으로 준비됐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90년 경희대 사학과의 '고구려 유적답사'를 들 수 있다. 교수·학생이 함께 성사를 위해 노력했고 한때 정부로부터 허가까지 받았으나 문턱에서 좌절됐다.

또한 본교 모의유엔행사와 세계민속예술축전(세민전)을 평양외대와 공동개최하려는 노력들도 높이 살만하다.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의 방북취재신청등 다양한 교류들이 고민되고 있으나 정부의 불허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올해에도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을 통해 전남대의 북한 김책공업대학, 일본조선대와의 자매결연이 진행됐고, 통일원을 통해 본교 세민전준비위원회에서도 평양외대와의 자주교류를 시도했다.<이옥선 기자>

□지역운동①—성남사례

부문운동 기반한 대중적 운동



성남지역 시민운동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까치골 통일아리랑'은 매년 시민회관에서 성대하게 치뤄지고 있다. 사진은 94년 8월 13일 '까치골 통일아리랑' 중 한장면

지역운동이란 지역주민들이 현실적 삶의 문제를 올바르게 인식, 스스로 해결하고 더 나아가 자기가 살아갈 고장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창조해 나가는 운동을 말한다.

이러한 지역운동이 성남지역에서 발달하게 된 이유는 성남의 탄생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60년대 서울시는 늘어나는 과잉인구와 빈민문제 등 도시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철거민을 옮길 신도시 개발 정책을 추진한다. 철거민 50만을 수용하고 이주, 정착시킬 대규모 주택단지를 광주군 중부면(지금의 성남)으로 선정하고 '광주대단지'로 명명하여 조성하기 시작했다. 1969년 5월부터 '선입주 후건설'의 무모한 이주계획 하에 서울의 판자촌 철거민들의 집단수용소 생활이 시작된 것이다.

두차례의 선거 때(7대 대통령 선거, 8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과 단일생활권으로 지상낙원을 만들어 주겠다는 공약이 남발하고, 이를 믿은 많은 이주민들로 인구는 어느덧 20만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1971년 서울시는 분양지 불하가격을 입주자의 실정과는 거리가 먼 고가로 책정하고 토지매각을 단행하려 했다. 이때 이곳 성남 지역운동의 맹아적 형태인 '분양지 불하가격 시정위원회'가 결성되고 '대지가격을 평당 1천5백원으로 인하할 것'등 4개조항의 요구조건을 내걸고 주민조직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요구가 묵살되자 주민궐기를 갖기로 한 8월 10일, 5만군중이 군집하여 소요를 일으키고 결국 주민들의 요구는 1백% 관철되어 8·10광주대단지사건은 일단락된다.

이 사건 이후 빈민선교사업과 야학활동이 시작되는데 지역운동이라기 보다는 사회봉사활동의 성격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73년 3월 한국기독교 협의회(KNCC)의 지원을 받은 '주민교회'를 중심으로 지역운동이 본격적으로 태동하기 시작했다. 78년 상대원에 성남노동운동의 시초라고 꼽을 수 있는 '만남의 집'이 마련되는 등 80년대를 기점으로 야학활동과 YMCA 활동이 제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노동, 청년, 학생, 여성, 문화 등 부문운동 단체가 성장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부문운동 단체들은 87년 6월항쟁, 7·8월 노동자 대투쟁을 겪으면서 연대의 틀을 모색하게 되는데 각 지역 민주인사들와 각 부문조직을 망라한 '성남민주화운동연합'이 87년에 건설되고, 이것은 다시 91년에 지금의 '민주주의민족통일성남연합(이하 성남연합)'으로 발전하게 된다.

성남연합으로 대표되는 현재 성남 지역운동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른 지역과 월등한 대중성을 갖고 있으며 부문운동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위에서 아래로의 지역운동이 아닌 기층부문으로부터 위(성남연합)로의 지역운동이다는 점이다. 성남청년회에 있는 김창년군은 "부문에서는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안는 사업들을 비교적 쉽게 진행할 수 있다. '까치골 통일아리랑'만 보더라도 매년 시민회관에서 성대하게 치뤄지고 있다. 다른지역에서는 보기 힘든 장면일 것이다"라고 말한다. 이러한 대중적 특성은 내년 지자제를 바라보는 지역운동 단체의 목소리에서도 보여진다. 터사랑청년회 회장 이상훈군은 "시민들을 단지 표밭으로 보는 기성정치권과는 분명 다르다. 이번 지자제를 통해 시민들이 진정한 지역정치의 주인으로 서도록 할 수 있는 곳은 지역운동단체 뿐이다"라고 말한다. '지역발전의 또 하나의 큰획이 될 지자제를 바라보는 자세는 사뭇 진지하다.

60년대 이후 철거민·이주민이 모여 일구어온 땅, 8·10생존권 투쟁으로 지켜온 땅, 성남의 시민들은 밝은 미래사회를 꿈꾸며 오늘을 살고 있다.

<신동헌 기자>

'통일정세' 적극적 활용 노력

학술·문화 등 비정치적 분야 교류 추진

북미 핵합상 타결 이후 형성된 통일정세는 회의탁자에 앉아 있던 정부관리들만의 것도, 남북정험의 상을 그리는 경제인들만의 것도 분명 아닌가 보다.

전국 총학생회 선거공약을 살펴보면 학생들이 현 통일정세를 기쁘게, 적극적으로 이끌어 가고자 한다는 것이 쉽게 드러난다. 이것은 크게 두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지금의 '조국통일위원회'를 '통일시대준비위원회'(가칭) 등으로 개편한다는 것이다. 또하나는 '불가능한 사업'으로만 생각됐던 '남북학생 자주교류'를 변화된 조건을 이용해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둘 다 '통일조국'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고, 통일의 '장애물'도 남아있지만 상대적으로 '현실성'이 더 커졌다는 데서 오는 자신감으로 판단된다. 무수히 많은 통일에 대한 공약중 '자주교류' 공약 몇가지를 살펴보자.

연세대 이규선·박승락 후보는 세가지의 자주교류 사업을 이야기하고 있다. 첫째, "남북해외의 대학생들이 민족의 이익을 위해 함께 투쟁하자." 구체적인 내용으로 일본에 있는 조총련계 여학생들이 폭행을 당하고, 정신대 할머니들의 배상문제가 무시를 당하는 것에 김일성종합대, 일본조선대 학생들과 공식항의를 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둘째는 남북해외 학생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한민족 임을 공유할 수 있는 '여름캠프'를 개최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대동제, 연고 민족해방제등 여러행사에 북·해외를 초대, 북한에 있는 연세동문 초청사업등 일상적인 자주교류 사업을 벌여나가는 것이다.

서울대 노홍식·변학문 선거운동본부는 '서울대-김일성종합대 종합학술, 문화, 체육교류 축제(서김제)'를 김일성종합대학에 제안하겠다고 한다. 이들은 선거공약집에 실은 '보고싶은 김일성종합대학 학생 여러분'으로 시작되는 편지에서 "조국의 미래를 책임져나갈 젊은이들이 만나 통일을 이루기 위해 청년들이 할일을 고민해 보자"고 서김제의 목적을 밝히고 있다.

경희대 배정기·최현 후보도 '자주경희 방북교류단'을 과단위부터 준비해 예술, 학술, 체육 분야의 교류를 추진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고 고려대 이원구·최재훈 후보는 '경평축구'를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에 제안하겠다고 했다.

시립인천대 김응호·이진의 후보는 편지교류, 초청사업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많은 '자주적 학생회' 노선의 후보들이 자주교류 공약을 내걸고 있고, 전남대와 부산대 등 공약으로 제시하지 않은 학교도 준비미흡으로 구체적인 상은 아직 안나왔지만 적극적으로 준비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한다.

이전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을 통해 추진되던 자주교류 사업이 정치적인 성향을 많이 띠던 것에 비해 선거공약에서 제시된 자주교류 사업은 대부분 학술·문화 등 비정치적인 분야이다. 이는 10월 20일 정부가 "학술, 문화, 종교 등 비정치적 분야의 남북교류를 전면 허용하겠다"고 발표한 시점에 굳이 정치적인 내용으로 교류를 추진해서 '빌미'를 잡힐 필요는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아직 '민간자주교류'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명확하게 자리잡지 않아 얼마나 실현될 지는 모르지만 올바른 통일을 이루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부>

통일조국을 만든 학생

'95총학생회 선거공약 중 자주교류사업

요술 진압봉

철거민의 강제 이주로 시작돼 성남 연합 건설에 이르러

럭키금성의 실체변혁

인사기록부에 학력난이 없다?

학력, 학력, 성별에 관계없이 능력과 업적, 자격요건에 따라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 진정한 인간존중의 경영이다

"뛰어넘을 수 있는 학력의 벽"

사원들의 불신과 의심
인간존중의 경영이 이 인재개발위원회를 통해 전파되고, 이해가 확산되고 있다는 많은 증거들이 발견되었으, 그때 못지않게 사원들의 반응은 여전히 불신과 의심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중에서 특히 고졸자가 대부분인 기능직 사원들의 반응을 보고는 참으로 안타까울 때가 많았다. 왜냐하면 이들이야말로 현장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며,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경영이념을 이해하고 실천해 줄 때 비로소 우리의 목적은 달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무직과 기능직
"인간존중의 경영요? 우리가 아무리 애써 봐야 뭐, 변수 있겠니까? 기능직 사원으로 시작해서 기능직 사원으로 끝난 데데 ……. 우리한테 인재개발 같은 얘기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뭐 월급이나 좀 더 주고, 복지에 더 신경 써 주면 그때 비로 인간존중 아닙니까?" 얼핏 들으면 그들의 진의는 가장 솔직한 것 같다. 그러나 그들의 말은 엄청나게 역설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사실 평균 5년 남짓 가량 같은 경우 이제 사무직과 기능직의 임금차는 거의 없어졌고 복리후생 측면에서도 사무직보다 나으면 나았지 뒤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기능직 사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잡고 물어 보면, '나이도 있고, 자식도 그도 하나 관리자가 되어 보는 게 소원이다'라는 게 그들의 솔직한 얘기이다.

편견은 깨부수어야 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인사관리를 해오면서 바위처럼 굳어진 몇 개의 편견을 갖고 있었다.

"고등학교만에 못 나온 사람이 관리자가 될 수 있나? 대학은 나와야지."
"명문대학 출신이 비명문대학 출신보다는 뭐가 다르도 보다."
"여사원들이 얼굴 얼마나 알고, 하면 얼마나 할 수 있겠어? 타이피스 치고 저 정도이나 잘하면 되지…".
이제 경영자들은 이런 비합리적인 상식들을 깨부수어 깨부수어야 한다. 중학교를 나온 사람이든 고등학교를 나온 사람이든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능력과 리더십을 갖추면 얼마든지 관리자는 물론 사장도 될 수 있고, 여사원도 평생 그 동해 대의적인 업무활동을 하는 데 충분한 외국어 실력을 갖췄다고 판단되면 해외 파견 사원도 될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학력, 학벌없는 기업
일본의 후지전기에서는 인사자료에 학벌란이 없다. 사장이나 경영자들이 본인의 능력이나 실적을 객관적으로 보기 이전에 학력이나 학벌에 의해 선입관을 갖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한다. 나 역시 사원들에게 그들의 학벌, 학력, 성별의 차이에 관계없이 능력과 업적, 그리고 자격 요건에 따라 조직의 테두리 내에서 가급적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인간 존중의 경영이며, 이런 풍토에서 선배들이 나고 주인의식을 갖게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구자경회장 저(오직 이 길밖에 없다) 중에서

인간존중의 경영 럭키금성

CHAMPIONS 1986 트윈스

자평종

검담금심(劍膽琴心)의 삶

이 희 옥
<본교 강사, 한양대 중소연구소 선임연구원, 중국어·80>

대학을 입학한 지 15년이 지났다. 그 해 광주에서 무수한 시민이 죽고 그리고 긴긴 침묵이 흘렀다. 아름다운 봄꽃들이 시들어 가면서 전주한 군인들 때문에 가을까지 학교에 들어가지도 못했다. 얼굴을 익히기도 전에 우리는 선생님과 암호같은 리포트로 학점을 교환하고 부로를 전디지 못하고 배낭을 멘 채, 홍도·흑산도로 유배같은 여행을 떠나곤 했다. 그 후 치욕같은 5공화국을 숨죽이며 대학을 다녔다. 부흥집, 비드나 부집에서 두부 한 모를 놓고 자유와 비겁함에 대해 밤새워 논쟁을 하면서도 끝내는 어쩌지도 못하는 답답한 마음으로 돌아오곤 했다. 우리는 그때 정신의 황폐함을 잃지않기 위해 몸부림치면서 자유란 이름을 소중하게 간직했다. 민주주의의 창문에 바로 단단한 독재의 쇠체가 있었기에 그 싸움은 심잡나는 것이었다.

그 무렵 우리에게는 '창작과 비평'만으로 충분히 좌익적이었고, 역설적으로 그 사상만으로 얼청난 시대와 맞서야 했던 모험적인 시대였다. 대학을 입학하지마자 일본글을 통해 한국사를 읽고, 경북궁 다원에서, 그리고 동숭동의 짜장면집에서 루카치와 서양경제사를 밤샐처 기며 읽으면서 우리는 그때 우리가 도덕적이었으므로 우리가 이 이론만으로 모든 현실을 극복해 갈 수 있다고 배웠다.

그리곤 참으로 배우고 싶었다. 그러나 그때 아무도 우리를 진정한 삶과 학문의 드높은 세계로 인도하지 않았다. 대학교육은 컴베이어 시스템속에 갇혀 그저 자본의 토대에 정확하게 복무하는 기능인만을 양성했다. 그리하여 더러는 별들지 않는 지하로 내려가 전혀 낯선 사상과 씨름하였고, 그중 일부는 교조의 늪에 빠지기도 했다. 우리는 그때 대화가 그리웠다. 술잔을 기울이며 넋두리같은 푸념을 늘어놓고 싶었다. 그러나 아무도 그 대화의 장에 우리를 세워주지 않았다.

선생님들은 그 절박한 시대속에서 "너희들 한걸음 늦추고 우리가 한걸음 빨리가서 보폭을 맞추자"라고 했으나 솔직하게 우리를 눈에는 나약하게만 보였다. 찬 겨울에 한없이 움츠려 들어오며 깃을 세우며 총총히 걷는 퇴근길 선생님의 쓸쓸한 초상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고민을 헤아리지 못했던 바도 아니었다. 그러나 우리는 최소한의 상징과 은유라도 듣고 싶었다. 물론 선생님들도 어쩌지 못하는 답답함 속에서 맥주집에 모여 시대를 탓하며 쪽을을 했으리라.

그러고 15년이 지난 지금 시간강사의 모습으로 다시 교정에 서있다. 내가 뜻내기 대학생 시절에 고민하던 바로 그 자리에 대답하고 도전적인 총명한 후배이자 제자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 쿵나를 시푸같은 강의실, 마이크를 들고 악장수처럼 악다구니를 쓰는 와중에서도 학생들은 시시비비를 침착하게 가리고 있다. 이럴때 가르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를 새삼 깨닫게 된다. 그러면서 나는 내가 학생이던 시절을 반추하게 된다. 내가 15년전에 가졌던 그 고민을 아무것도 풀어주지 못하고 또다시 이전되고 있음을 느끼게 될 때마다 괴롭다. 더우기 먹물이 배어들어 '무엇을 말언해야 한다'는 당위를 알면서도 내가 지닌 한없이 가벼운 사상앞에 말의 책임이 두렵다.

수업중에 에피소드처럼 했던 이야기를 메모했다가 크리스마스 카드에 실어 자신의 고민을 토로해 오던 수강생들을 보면서 내가 지닌 자신없는 인식체계를 강요할 수 없다. 아마 내가 학생이었을 당시 선생님들도 이러한 고민을 했으리라. 나의 후배들이자 제자들이 확신하고 정리된 답안을 요구할 때마다 나는 지금 불확실하고 정리되지 못한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다. 내 사상으로 내자신을 설득할 수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유인해 갈 수 있는가 라는 근본적인 물음에 선뜻 명확한 대답이 떠오르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하문은 정리된 답안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말그대로 스스로 배워서 이 사상에 질문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교육일 것이라고 자위하고 있다.

일전의 중국학자가 나에게 검담금심(劍膽琴心)이라는 붓글씨를 보내준 적이 있다. 원칙을 지키고 삶에 대한 드높은 것을 지켜가면서도 거문고를 타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라는 뜻이다. 나는 이것을 자기에게 엄격하고 타인에게 관대한 삶을 배우라는 뜻으로 새겼다. 이러한 자세가 공동선을 지향해 갈 때, 나는 15년전이나 지금이나 교육의 목표는 무수한 변화속에서도 이러한 원칙은 존재한다고 믿는다. 그것은 인간들이 바르게 소망하고 공동체의 소중함을 가르치는 것이 대학본연의 기능이기 때문이다.

• 교육개방의 강풍이 몰아친다.

5. 각계의 부실한 교육시장 개방 대책

진정한 교육대개혁이 유일한 개방대책

각대학 발전위 구성·특성화 방안 수립해야

· 머리말

우리나라의 교육시장 개방이 목전으로 다가왔다. 내년부터는 학원시장이 개방되며 1996년부터는 고등교육시장(대학시장)이 개방된다. 교육시장 개방이 초래할 문제들에 대해서 주무부서인 교육부와 대학교육협의회, 대통령 직속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및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등의 관련단체에서 일정정도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몇가지의 대책도 제시된 바 있다.

이중 민교협을 제외한 나머지 단체들의 연구결과는 대체로 교육부의 입장과 흡사하다. 민교협에서는 교육정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시장개방문제를 포함한 교육정책전반에 대해 현재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여서 아직 구체화된 대책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

대학교육시장 개방에 대한 교육부의 대책

대학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주무부서인 교육부가 제시하고 있는 구체적인 대책은 단 한가지이다. '대학 설립인가 기준 예고제'를 실시하여 부실한 외국고등교육기관의 진출을 제한한다는 것이 그것이며 이를 위해 설립학교 규모, 지역, 부지재원 등의 사전공고에 의한 학교설립계획 신청과 관계전문가의 심사위원회 평가절차를 두겠다는 것이다.

교육부의 대책은 외국인이나 외국대학이 국내에 영세규모의 대학을 신설하는 것을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으나 그러나 외국대학이 인시에 교지, 건물 등 대규모 시설투자가 필요한 대학신설형태로 진출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원칙적인 대안이라 할 수 없다. 외국대학이 선호할 진출형태는 오히려 분교설치나 학위공동인정제, 추성과정 설치, 특수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또는 최고 경영자과정 설치, 및 부실국내대학의 인수등이 될것인데도 이에대한 대책은 없다.

또한 교육부는 1993~1994년을 개방준비단계로 설정하여 이 기간동안 개방에 따른 관련법령과 제도를 정비하고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계획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 기간동안 우리나라 대학교육에 무슨 변화가 일어났는가.

교육부는 외국의 대학이 진출해올 경우 상업주의적 교육풍토가 조성될 것을 우려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대책도 없을 뿐더러 현재의 우리대학 풍토를 개선할 방안조차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개혁위원회의 대학교육 경쟁력 강화 방안

교육개혁위원회(교개위)는 교육시장개방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으며 따라서 구체적인 개방대책을 제출한 바는 없다. 다만 지난 9월 5일 대통령 보고자료인 '신한국 창조를 위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대학교육의 국제경쟁력 강화방침을 담고 있어 그 내용이 과연 우리 대학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교개위는 대학교육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대안으로서, '대학모형의 다원화·특성화', '연구와 교육지원체제의 혁신' 및 '자율적인 고등교육 행정체제의 구축' 등을 내세우고 다시 이에따른 세부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교개위의 대안은 분명 긍정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대학을 연구중심 대학, 전문인력양성 대학, 기술인력 양성 대학 등으로 다원화시킨다는 방안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 대학이 지니고 있는 고질적인 계층분화(상위권 대학과 중하위권 대학) 현상을 오히려 더욱 고착화 시킬 방안이 대부분을 점하고 있다. 요컨대 소수 몇개의 대학만 집중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교개위의 안은 우리대학을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 올리자는 것이 아니라 소위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경제적 요구에 대한 교육부문의 방안으로서 계획된 것으로 보인다. 즉 WTO체제의 출범과 세계경제구조내에서 한국자본주의의 위상변화에 따른 새로운 기술인력 창출이라는 자본측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 이상의 의미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진정한 교육개혁이 유일한 개방대책

아래에서는 교육개혁의 문제를 대학운영주체와 교육주체 및 교육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검토해 보기로 한다. 먼저, 우리대학교육이 개혁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개혁되어야 할 것은 대학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사립학교 재단과 국가 및 공공기관이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80%가량이 사립학교 재단에 의해 운영되고 있지만 이중 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재단은 순전히 영리목적으로 대학을 운영한다.

불법 편·입학, 공금횡령, 교수채용 비리, 교수·학생들의 지치기구 무력화 기도 등의 갖가지 수법을 동원해 대학을 황폐화시킨다. 재단전입금이 전혀 없거나, 있더라도 장부상의 기록에 불과한 경우가 허다하다. 비리·부패재단을 과감하게 국·공립화시키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가백년지대계'인 교육에 대해 무관심하기는 국·공립대학을 운영하는 국가·공공기관도 마찬가지다. 과감한 대학교육 개혁을 위해서는 이들의 교육에 대한 자세부터 개혁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교육의 주체인 교수와 학생, 직원 및 동문등의 학교운영전반에 대한 참여를 통해 대학의 내부민주주의가 실현되어야 한다. 교수 개개인의 '학문연구의 자유'와 교권보장은 물론이거니와 교수단체인 교수회의(협의회)가 의결기구화 되어 실질적인 자율과 자치가 이뤄어져야 한다. 과거 피교육자로서만 인식되어온 학생들은 엄연히 교육서비스의 소비자이자 연구활동의 한 주체이다.

이제는 소비자가 원하는 학문이 공급되어야 하며 학생들의 학사운영 참여가 일정수준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직원노조및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역시 건강한 교육조직을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전국의 모든 대학이 대동소이한 학문체계를 갖추고 동질적인 학문을 재생산해 내는 구조 역시 혁파되어야 한다.

각 대학들이 지체 발전위원회등을 구성하여 교육시장개방에 대비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학을 특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는 등 자구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간 우리경제가 발전에 가장 큰 기여를 해 왔으면서도 지금은 오히려 국제화의 걸림돌로 매도되고 있는 우리대학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한다. 우리대학이 국제적인 수준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투자가 필요한가를 파악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학문의 지주성 확보와 교육시장개방 대책으로서의 본질적인 교육개혁 및 이를 뒷받침할 물적수단인 교육재정의 확보는 외부로부터 주어지지는 않는다. 교수·학생·직원·동문 나아가서는 국민모두가 힘을 합해 '교육민주화 운동'을 힘차게 전개할 때 쟁취될 수 있는 것이다.

박 정 원
<상지대 경제학과 교수>

□이종윤 기획조정차장으로부터 듣는 외대의 교육개방 정책

"외대는 어문학·지역학으로 특화발전을 이뤄야한다"

-교육개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개인적으로는 별로 나쁠 것은 없다고 본다. 부분별하게 개방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지만 이로 인해 우리나라 대학도 완전 경쟁체제로 들입하게 되면 본교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교육개방에 대해 현재 본교가 마련한 대응방안은?

=국제화·개방화 시대에 우리대학이 살아남는 길은 우리대학만의 특화발전을 이루는 것이다. 즉 외국어와 외국학을 중심으로 타대학보다 우위를 차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우리는 위성안테나 설치를 하고 있으며 내년 2·3월경 용인에 외국학 종합 연구센터가 설립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방시대에 살아남는 길은 사회 발전에 적합한 학생을 배출함과 동시에 그와 맞는 연구기능을 갖추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수요가 많은 과는 정원을 늘리고 사회적 수요가 적은 과는 정원을 줄이는 학과 재조정을 생각하고 있다. 또한 커리큘럼 개정과 함께 신규교수를 임용할때 지역학을 전공한 교수들을 충원할 계획이다.

이 모든 것이 5개년 발전 계획안에 포함된 것이다.

이를 모두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학내 모든 구성원들이 힘을 합쳐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번에 학교측에서 발표한 5개년 계획안이 장기 마스터플랜이 없는 가운데 세워진 단기적 사안이 아닌지?

=장기 마스터플랜은 5년이 지나서 다시 5개년 계획을 세움에 따라 지연히 기투어지는 것이라 본다.

때아닌 원시화 바람

○…세계화를 부르짖고 있는 요즘 때아닌 원시화 바람이 사립대학들에게 불어닥쳐 화제.

크로니클자 알아본즉, 교육개혁위원회(교개위)가 사학개혁안중 사립대학의 이사회 구성에서 설립자의 친인척 이사수를 전체의 3분의 2까지 허용키로 했다나.

이에 한 홍산 왈

"짐승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던 데, 교개위는 도대체 뭐을 바가지로 남기려는것."

○…"연구는 혼자해야 하는법. 고로 제군들에게 더 많은 자유시간을 주노니 이동안 열심히 연구활동을 하도록"

'연구의 자율성'이란 이름아래 조기 중강을 하는 교수님들이 많다는데.

평소엔 그렇게 말 안들던 학생들도 '조기중강'이란 말엔 고분고분 호붓한 표정.

하지만 홍산들이여, 내년엔 등록금이 또 오른다는데 코앞의 조기중강을 마냥 호붓하게만 생각할 수는 없는 일임을 그대들은 알고 있는지?/

○…지난 12·12 사건에 이어 검찰이 또 다시 국민을 몰면하는 일이 있어 크로니클자 씁씁.

반국가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구국전위' 안재구씨가 사형구형을 받았는데 사건이 조작이라는 의혹이 있다고.

우스운 일은 선고를 받은 그날에 "12·12 반란자 기소유예 처분의 재항고"에 대해 "이유없다"고 기각된 일이 있었다는것.

조작인 가능성이 있는 물증은 "이유있는"거고 검찰도 인정한 내란·반란은 어째 "이유없는"건지….

○…세상이 너무 무서워 못살겠다는 원성이 빗발치자 이번에 우리 경찰이 가스총, 물대포 등 첨단 무기로 무장한 현대식경찰로 탈바꿈한다는데….

크로니클자 지세히 알아보니, 현대식 경찰은 흉악범 퇴치 경찰이 아니라 시위진압대 전경이라고.

UR비준 통과에 혈안이 돼있는 우리 문민정부가 오죽 불안했으면 그랬을까마는, 폭력으로 민주시민을 억압하려는 생각은 언제쯤 고쳐질 수 있을런지.

이러다 미국에서 시위진압용 로보캅 판다는 소리 나오지 않을까?

현대식 경찰(?)

비둘기 칠판

이문벌

■공고

94년도 법과대학 교양특강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주제 : 중권 지본주의와 법
때 : 11월25일(금) 3시~5시
곳 : 대학원 6104호
강사 : 김중서(교보증권 투자 분석 부장)
대상 : 학부 및 대학원생

영국문화원 장학금 안내>

주한 영국문화원은 영국학 연구를 위해 영국대학으로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1년간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니 관심있는 학생은 서유럽연구소 영국학연구실 유혜준 교수에게 문의할 것.

대상 : 본교 학부 4학년생 및 석사과정 재학중인 영어가 능통한 남녀학생
마감 : 11월24일(목)
문의 : 4246, 4242 유혜준교수 연구실 및 안우규교수 연구실

■동문회

<포항제철고>

동문회 모임이 있습니다.
때 : 11월26일(토) 6시
곳 : 비어팔라 호프

<건대부고>

졸업생 환송회가 있습니다.
때 : 11월26일(토) 5시30분
곳 : 도서관 입구

■영화제

이태리영화제가 있습니다.
때 : 11월22일(수)
3시—지중해
5시—순수의 비행
곳 : 소강당

■강좌

외대인을 위한 수족침강좌가 있습니다.
때 : 11월26일(월)~11월25일(금)
곳 : 온누리자치방

■예술제

제3회 이란어과 종합예술제가 있습니다.
11월23일, 24일 : 전시회
11월25일 : 본행사
3시—영화제
6시—원어연극, 노래공연
곳 : 소강당전시장, 대강당

왕산곁

■함께 보세요

88년도 우리는 벅찬 가슴으로 외대에 태릉의 깃발을 올렸다. 이제 또 하나의 깃발을 올린다.

이문 왕산 함동 동문회
때 : 11월26일(토)
곳 : 이문동 기네스 호프
회비 : 2만원

<제21대 태릉고 동문회>

■총회

VECan 여러분, 총회가 있습니다.
때 : 11월 25일(금) 5시 30분
곳 : 동아리방에 모인후 Feel로 내려감

■동문회

<경희고>

때 : 11월 27일(일) 5시
곳 : 중정로 종근당빌딩 스카이라운지 15층

<청량고/휘경여고>

드디어 왕산에 최고의 동문회가 떴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위해 우리 모두 모여 축하합시다.
때 : 11월 23일(수) 5시 30분
곳 : 학생회관 깡통옆 동나무

<경동고>

동문회 모임이 있습니다.
때 : 11월 24일(목)
곳 : 승차장 휴게실
회비 : 5000원+α

<조대부고>

카니발이 있습니다.
때 : 11월 26일(토) 7시
곳 : 단란주점 태평양 (이문동 국민은행 옆 지하)

■축하합니다

보문이가 SCA의 회장이 되었군요. 우리 모두 축하합니다. 짝/ 짝/ 짝/

<기독학생회>

남성남, 원승, 대두, FBS지킴이, 및 나리 선배님들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언제나 승리하세요.

<언어 89>

유정아/ 우식아/ 재우야/
생일 무진장하게 축하합니다.

<그대안의 마인어과 94일동>

■수고했습니다

FBS국장님, 국원여러분! 방송제 준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곧은 소리, 밝은 방송을 들려 주시길….

<언론협의회>

■찾습니다

학생회관 1층 여지화장실에서 검정색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신분증만이라도 학생회관 1층 총여학생회 우편함에 넣어 주세요.

'비둘기 칠판'의 문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알리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이문·왕산 기자실로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광고료는 받지 않습니다.
이문 학생기자실 학생회관 2층 961-4183, 4152
왕산 학생 기자실 2층 (0335)30-4112

양캠선거, 이번주에 거의 마무리

서울, 오는 23일(수) 서양어·정책과학대 선거

용인, 오늘(22일)까지 동양학대 재선거

지난주부터 시작된 각 단위 학생회 선거가 이번주 중 거의 마무리 지어지고 내년을 이끌어갈 대표들이 선출됐다. <총학생회 선거 관련기사 1·3면>

먼저 서울캠퍼스에서 열린 각 단대 선거일정을 보면 16일(수)·17일(목) 이틀에 걸쳐 법대와 상경대 학생회장 선거가 실시됐다. 16일엔 법대 학생회장으로 입후보한 박대영(법학 3)군이 투표자 3백5명 중 2백64명의 찬성표를 얻어 86.5%의 지지율로 당선됐고, 다음날 실시된 상경대 학생회장 선거에서 박성동(경영 3)군이 4백17명이 투표한 가운데 3백77명의 찬성을 얻어 92.4%의 지지율로 당선됐다.

한편 18일(금) 선거를 실시할 예정이었던 동양어대 학생회장 선거는 우천으로 말미암아 어제로 미뤄져 87.2%의 지지율로 당선됐다.

지난 18일이 등록 마감일이었던 정책과학대와 서양어대 입후보자를 보면 정책과학대 후보로 박문현(신방 3)군이 유권자 5백78명중 2백13명의 추천을 받아 단독 입후보했고, 이와는 반대로 서양어대는 강동안(영어 3)·장대홍(포르투갈어 2)조가 기호1번으로, 김윤식(영어 3)·박성춘(영어 3)조가 기호 2번으로 각각 등록했다.

정책과학대와 서양어대 선거는 양쪽다 오는 23일(수) 치뤄진다.

한편, 용인캠퍼스에서는 지난 14·15일(월·화) 생활협동조합(생협) 학생위원장 선거를 시작으로 각 단대 선거가 활발히 진행됐다.

이번에 처음 세워진 3자 생협 학생위원장 선거에서는 엄익준(인문·사학4)군이 투표자수의 90%이상 지지율을 보이며 당선됐다. 이와 함께 지난 16·17일(수·목)일 총학생회 선거와 아울러 사회과학대를 제외한 모든 단대의 선거가 있었다.

전탈봉(영어 3)군이 단독출마한 서양학대는 48.3%의 투표율에 86.3% 찬성율로 당선이 확정 됐고, 동구어대는 66.1% 투표율에 84.3%로 단독 입후보한 이주남(체코 4)군이 당선됐다. 또한 지연대는 64.26%의 투표율에 77.8%의 찬성율로 단독입후보한 이재규(화학 2)군이, 인문대는 68.4%의 높은 투표율에 80.7%의 찬성율로 오상우(사학 4)군이 당선됐다. 특히 유일하게 경선으로 치뤄진 동양학대 선거에서는 기호1번 문석규(인도어 4)군과 기호2번 이관혁(아프리카어 3)군의 표차이가 19표로 무효표 20표보다 적어 어제(21일)와 오늘(22일) 재선거를 실시한다.

<짐광표 기자>

<각 과 학생회 선거 일정>

용인			서울		
학 과	선거일	입후보자 및 당선자(★)	학 과	선거일	입후보자 및 당선자(★)
서반아어과	16일	★임상진(90)	영어과	17일	★정 : 서경태(93) 부 : 이상익(90)
포르투갈어과	16일	★허진용(90)	중국어과	15일	★황의삼(93)
체코어과	23·24일	나정환(93)	이태리어과	16일	★서영광(91)
독일어과	17·18일	★이강협(90)	무역학과	16일	★김장수(93)
이태리어과	17일	★정 : 구경태(90) 부 : 최석원(87)	경제학과	15일	★한병진(93)
루마니어과	17·18일	★김현종(90)	경영학과	15일	★노찬종(93)
아프리카어과	10·11일	★손현석(93)	영어교육학과	17일	★정 : 양상현(93) 부 : 조경옥(94)
화학과	21일	김진경(90)	이란어과	8일	★나인주(93)
통계학과	18일	★김병호(93)	태국어과	4일	★유희동(90)
제어계측학과	16일	★이형구(93)	일본어과	21일	★하찬규(93)
경제학과	25일	김성일(91)	정치외교학과	17일	★정재용(93)
경영정보학과	28·29일	태형성(90), 김민종(90)	신문방송학과	10일	★정명룡(93)
영어과	15·16일	★정 : 김태형(92) 부 : 배옥자(93)	네덜란드어과	21일	★이성환(90)

서울 영어과, 강의계획서등 발간

올바른 학습풍토 세우고자

서울캠퍼스 영어과 발전 학생추진위원회(영발추)는 오는 30일(수)부터 3일동안 진행되는 수강신청 기간 동안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강의 에세이집' 및 '강의계획서'를 오는 28일(월)경 펴낼 예정이다.

이는 과에서 학생들이 올바른 학습풍토를 세우고자 자발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끌고있다.

먼저 강의에세이집은 학생들이 듣게 될 각 교양과목 및 전공과목에 대한 정보를 그 강의를 들어본 학생들로부터 강의의 내용과 느낌을 쓴 글을 받아 한데 엮은 책이다.

이와 함께 강의계획서는 교수들의 협조를 얻어 수강 신청 전에 나오며 영어과 도서관에 비치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용인캠퍼스 교무처는 강의계획서를 작성해 각 교학과 및 각과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으나 서울캠퍼스는 아직 실시되고 있지 않다.

이번 강의에세이집 및 강의계획서를 준비해 온 영발추 위원장 이중국(서양·영어 2)군은 "그 강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채 이름만 보고 수강 신청하는 나쁜 관행을 조금이라도 고쳐 보고자 처음 실시해 봤다"라며 "이로 인해 다른 과까지 확대돼 실시됐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준비 이유를 밝혔다.

불어과, '프랑스 문화의 달' 개최

영화제·도서전시 등 다양한 행사

불어과 학생회는 11월을 '프랑스 문화의 달'로 정하고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다.

지난 9일(수) 대강당에서 열린 '하니브로' 노래발표회를 시작으로 10일(목)과 11일(금)은 프랑스 도서전시 및 할인판매(20%)를 대학원 로비에서 가졌다. 또 '델리카트슨', '디바', '베티블루' 등 작품성을 지닌 9편의 영화를 상영한 '프랑스 영화제'는 많은 학생들의 관심속에서 진행됐다. 이 행사는 지난 18일(금)과 19일(토), '추억·사랑·자유·모두 함께'라는 주제로 대강당에서 열린 상송반(RESONANCE)의 공연을 끝으로 행사는 모두 막을 내렸다.

과회장 곽종철(서양·불어 3)군은 "불어과 40주년을 맞아 많은 학회가 적극적으로 참가해 불어과 모든 일원들의 대동마당을 만들고자 했다"고 행사의 의의를 밝혔다.

정보통신공학과 내년 용인에 신설

화란어과등 일부학과 명칭 개정

내년부터 용인캠퍼스에 정보통신학과가 신설, 50명의 신입생을 모집할 예정이다.

또한 제어계측공학과·산업공학과·전자공학과의 입학 정원을 각 10명씩 증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대학당국의 '2천년대에는 대학 경쟁률이 1:1이하로 떨어짐에 따라 사회적 수요가 많은 과는 정원을 늘이고 수요가 적은과는 앞으로 정원을 줄일 방침'에 의해 실시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학당국은 화란어과를 네덜란드어과, 스웨덴어과를 스칸디나비어과, 전자계산학과를 컴퓨터공학과로 각각 과명칭을 바꾸었다.

고침

지난 11월 15일(화)자 11면 선거기사에서 사범대 학생회장 손호진군을 박호진군으로, 한국어교육학 과회장 조준호군을 장준호군으로, 루마니아어과 과회장 김원중군을 김원종군으로 바로 잡습니다.

시대의 양심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는 지난 16일(수) 교수 식당에서 보안사 민간인 사찰을 폭로한 윤석양(서양·노어85, 제적상태)씨 환영전치를 열었다. 약 2백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이 자리에서 윤석양씨는 "학교에 다시 들어오니 몹시 기쁘다"라며 출소 소감을 밝혔다. <사진부>

교협·노조, 모금운동 벌여

본교 출판부 김정은양 자매 치료비 마련

교수협의회(교협)와 노동조합(노조)이 본교 출판부에 근무하는 김정은·김주연 자매의 치료비 및 학비마련을 위한 모금운동을 벌여 눈길을 끌고 있다.

김정은·김주연양은 어려운 환경에서 대학 입시를 준비해 오다 언니인 정은양이 결핵성 관절염으로 쓰러져 학업을 중단하게 됐다. 이런 사정을 알게 된 노동조합에서는 지난 10월 11일(화) 본교에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모금 운동을 벌여 4백60여만원을, 교협은 지난 11일(금)에 성금 3백56만원을 각각 전달했다. 이번 모금에는 교협의회·초록회 등도 적극 참여하여 동료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 노조 조합장 박정열씨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열심히 공부해 보려는 이들을 돕고 싶었다"라며 "부디 하루빨리 완쾌하여 다시 학업을 시작할 수 있었으면 한다"라고 이번 모금 활동의 의의를 밝혔다.

현재 정은양은 퇴원해 고향집으로 내려가 요양을 하고 있으며, 주연양은 출판부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다.

사학과 열살잔치 열려

용인캠퍼스 사학과는 지난 19일(토) 자이언트 호텔에서 1백50여명의 재학생·동문들이 참여한 가운데 '사학과 열살잔치'를 개최했다.

'열번의 긴 호흡 그리고 도약'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 자리에서는 지난 10년간 과에서 제작한 옷을 선보임과 동시에 그해 가장 유행했던 노래가 공연돼 학생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박철 교수, 서반아 문학사 출간

학계 최초 서반아 전후 문학 실어

서반아 문학계 최초로 서반아 전후(1936년 이후) 문학사를 소개하는 책이 출간돼 학계의 관심을 끌고있다.

이번에 출간된 책은 2년전 펴낸 서반아 문학사 상권(송산출판사)에 이어 본교 박철(서반아어) 교수가 중·하권을 펴내 서반아 문학사의 완결편이라 할 수 있다.

올해 40월 완결된 서반아 문학사는 상권은 중세부터 르네상스·바로크 문학까지, 중권은 18세기 계몽주의 부터 19세기 낭만주의와 사실주의·모더니즘·20세기 초 문학·27세대 문학까지 서반아 주요 작가 및 작품들을 다루었다. 이와 함께 하권은 서반아 내전 직전의 연극으로부터 시작해 전후 현대 문학을 연대별로 구분해 장르별로 주요 작가 및 작품들을 실었다.

이 책을 펴낸 박철 교수는 "서반아어과가 우리나라에서는 본교에 최초로 생긴 학과라 자명감을 갖고 이일에 임했다"라며 "10여년 동안의 대작업이 종결되 매우 기쁘다"라고 책 출간 소감을 밝혔다.

로타랙트, 환경전시회

로타랙트의 제5회 환경전시회가 지난 15일(화)부터 17일(목)까지 3일동안 대학원 로비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에서는 캠퍼스내의 환경 파괴 현장을 사진을 통해 보여준 하내 환경 고발전, 종이컵 모으기 운동, 재생용품 판매, 분해가 되는 비닐전시 등이 열려 학생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 행사를 준비한 김시조(상경·부역 2)군은 "로타랙트는 봉사활동을 위한 연합 동아리로써, 주로 아동보호와 환경보존을 위한 활동을 한다"라며 "이번 전시회는 학생들에게 환경보존의 필요성을 알리고자 개최했다"라고 이 행사의 의의를 밝혔다.

이사람

"우리의 관심과 노력, 하나된 힘으로 교수·직원·학생이 함께하는 생협이 세워졌습니다. 이제 그 힘을 다시 모아 학교 오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겨나는 학원 건설·통일 시대를 대비한 민족생활운동의 정착을 함께 일구어 냈으면 합니다."

지난 15일(화) 용인캠퍼스 생활협동조합 학생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된 엄익준(인문·사학 4)군의 말이다.

학생복지위원회의 일환으로 건설된 대학생활협동조합에 이어 올해 교수·직원·학생으로 새롭게 확대·개편된 생활협동조합은 학생회관의 식당 운영, 각 건물의 자판기와 매장관리 각종 특강·생활문화운동 등의 사업을 벌이면서 수익금은 학생들에게 돌리고 있다.

"3자 생협이 꾸려진지 얼마 안돼서 아직 일의 역할분담이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라고 말하는 그는, 인원이 적고 사업을 알리는데 있어 학우들의 관심을 유발시키지 못하는 것등 초기 학생위원회의 어려움을 밝혔다.

이에 대해서 그는 개선소위원회를 두어서 의견을 수렴해 나가고 각 대의원을 통해 사업을 알려나갈 것이라 한다.

교수·직원·학생위원회 중 가장 많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바로 학생위원회라고 말하는 그는 그 위상과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생협의 주대상은 왕산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이해와 요구를 다양하고 실속있게 받아들여 더욱 많은 사안을 제기하고 얻어내는 학생위원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오고 싶은 마음이 절로 나는 학원을 만들겠습니다"

<초대 생활협동조합 학생 위원장 엄익준 군을 만나>

현 생활협동조합이 건설되기 전 생활협동조합 발기위원회 위원이었던 그는 생활문화운동에도 관심이 많다.

"요즘 먹거리 문화를 보면 쌀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입거리 문화 역시 뜻도 모르는 외국어가 혼란스럽게 붙어있는 옷을 입는 등 우리것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라고 말하는 그는 바른 먹거리 문화로 다양한 우리 식단·입거리 문화로 개량한복점 설치 등의 민족생활문화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한다.

3자 생활협동조합 건설에 신경을 쓰느라 사업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그는 다음과 같이 당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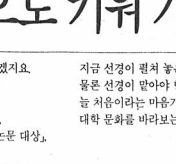
"왕산이란 터전 위에 선배들의 노력으로 생활공간이 하나, 둘 세워졌습니다. 이젠 선배들의 노력이 아닌 우리들의 노력과 후배들에 대한 사랑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박일천 기자>

◎이번주는 이렇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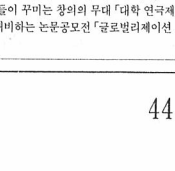
날짜	11/21(월)	11/22(화)	11/23(수)	11/24(목)	11/25(금)	11/26(토)
	· 동양어대 학생회 선거	· 왕산 FBS방송제 (신입의동 207호 4시) · 외인부대공연 (이문 대강당, 5시)	· 서울 정책과학대 · 서양어대 학생회선거	·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선거 1차 유세 및 정견토론회 (2시, 노천극장)		
	돌컵전시회(학생회관전시실)		총여학생선거 (교양관·인사대·신입의동 로비)			
		· 해무리 10주년 상설행사기간				
	· 이태리 영화제 (이문소강당)					
식단 이문	히이라이스 참치 김치찌개	소고기 버섯덮밥 두부된장찌개	볶음밥 육개장	선지우거지국 잡채밥	오징어볶음덮밥 설렁탕	
왕산(학생회관)	오징어 덮밥	닭볶개장국·밥	육개장	카레라이스	비빔밥	

대학 문화의 지성적 자긍심을 지켜온 종합 교양 학술 잡지.



한국 대학의 미래를 담는다. 「지성과 패기」

선경그룹이 조선일보사와 함께 마련하는 대학 연극인들의 신선한 경연장.



무대마다 청년의 패기가 넘친다. 「대학 연극제」

「글로벌리제이션 시대를 대비하는 우리의 전략」을 주제로 한 전국 대학(원)생들의 논문 공모전.

「글로벌리제이션 논문 대상」

선경이 펼치는 대학의 문화 마당 –
늘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키워 가겠습니다.

우리 시대의 대학 문화, 그 커다란 의미를 늘 생각합니다.
사회가 변하는 동안 우리의 대학 문화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대학 가요제와 대동제 탈춤판을 두루 즐길 줄 알고 옛것과 새것을
고루 누리는 다양성이 있으며 개성주의와 공동체론의 공존,
그런 것이 오히려 특징인 듯합니다.

대학 문화가 다양한 만큼 대학 문화를 보는 시각도 여러 갈래이겠지요.
그 중의 하나일 선경의 생각, 선경이 펼친 일들을 되짚어봅니다.
대학을 생각하고 대학인의 생각을 담는 잡지 「지성과 패기」,
연극을 사랑하는 대학인들이 꾸미는 창의의 무대 「대학 연극제」,
글로벌리제이션시대를 대비하는 논문공모전 「글로벌리제이션 논문 대상」.

지금 선경이 펼쳐 놓은 작은 마당입니다.
물론 선경이 맡아야 할 몫이 이밖에 더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늘 처음이라는 마음가짐을 흐트리지 않으면서
대학 문화를 바라보는 선경의 생각을 한껏 한껏 키워가겠습니다.

SUNKYONG
鮮京그룹

□연극평— '넌 프로다'를 보고

'진짜' 프로가 정말로 아름답다

일하는 여성들의 현실과 진정한 '프로'가 되기 위한 극중 인물의 방황 그려

'그녀는 아름답다? 프로는 아름답다?'

배우들의 연기에 눈망울을 밝히며, 적나라하게 벗겨지는 세상 위에도 밝은 웃음을 쏟아낸다. 어쩌할 수 없이 입이 다물어지는 침묵이며, 어머니를 부르는 노래에 고개 숙여 감추는 눈물까지… '여자라는 것'의 사회적 의미를 공감하게 되는 객석의 표정이다. 객석에 앉아 있지만 손님이 아니라 어느새 주인이 되어 몰아경에 빠져들게 되는 한마당의 모습이다.

'넌 프로다'

극단 '현장'이 일하는 여성들을 위한 여성주의 연극을 표방하며 21번째 정기공연으로 올린 작품이다. 요즘 빈발하는 여성연극들은 일하는 여성들의 현실을 왜곡하고 또다른 소외감을 부추기며 개인주의와 상업주의로의 성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여성주의는 여성들이 일터에서 만나는 차별과 좌절을 극복의 대상으로 삼고 그 모색을 함께하는 것이어야 할것이다.

'넌 프로다'는 이런 관점에서 '여성들이 정체성 회복을 위해 일을 가져야 하고, 가능하면 성차별이 적은 전문직으로 진출해야 한다'는 기존의 통념에 대해 심각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그럼 주인된 따뜻한 시선으로 그 안을 들여다보자.

박수소리로 연극이 끝나고 왜인지 모를 중압감과 답답함을 느꼈다. 한국사회의 여성문제는 민족과 계급·계층 속에 복잡하게 얽혀있는 까닭에 풀어내기 어렵다는 일반론이 아니다. 오히려 작품의 주제의식이 깊숙히 숨겨져 있어 포착하기 어려웠다는 설명이 합당할 것이다. 과연 극단 '현장'이 하고자 했던 이야기는 무엇일까?

문예의 본성은 '인간학'이다. 문학예술은 인간의 전형을 더듬어 바람직한 인간상을 제시하고 사람들의 참된 삶에 복무한다는 얘기일진대, 배우들이 던진 몸짓과 대사의 파편을 하나하나 긁어 모으며 가닥을 잡아보도록 하자.

인희는 자신만만한 방송국 PD로 '비라는 현실에 우산이라는 개인적 대안'을 제시하는 보통의 프로여성이다. 재숙은 실패를 거듭해 시간제 강사로 일하던 중 대학 방송국 동료였던 인희의 추천으로 구성작가로 일하게 되는데, '화려한 자켓'을 걸친 잘나가는 프로여성으로의 변신을 꿈꾸며 '데뷔'에 휩쓸리게 된다. 혜린은 상고를 졸업하고 사무직 노동자로 일시 고용되어 차별과 좌절을 겪게 되지만 '반쪽 첫월급 속내복으로 기르신 고마움을 감사하고파 하지만 어머님 내가 걸어갈 그길을 난 반쪽 인생으로 결코 살 수 없네'라고 노래하며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시련과 환상을 깨며 아름다운 진짜 프로여성의 길을 달리겠다'라는 희망을 이야기한다.

애정을 가지고 세 사람의 족적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갈수록 발걸음이 무거워짐에 반하여 눈이 뜨이고 가슴이 환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왜일까? 그것은 문학예술을 통해 사람을 만나고 사람속에서 사회를 읽을 수 있는 지점을 발견하였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넌 프로다'에서 서로 다른 세 사람과 그들의 삶, 그리고 사람과 삶이란 씨줄 날줄로 엮은 사회까지 읽어 낸 것이다.

즉 대중매체를 통해 강요되어지는 '내가 하고싶은 일을 할 뿐이다'라는 속물 프로의식의 거짓들을 간파하고, 이 땅의 모든 취업여성들이 자기 위치에서 프로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여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억압과 굴복을 강요하는 사회쪽으로 시야를 돌려야한다는 암맹이를 얻어낸 것이다.

이제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처음의 따뜻한 마음으로 돌아가자. 여성의 현실과 자신의 일에 대한 올곧은 안목과, 인간학으로서의 문예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안겨준 보기드문 보물이 있으니 가서 확인하고 느껴보고 박수도 쳐주고 사랑을 건네주자. 그리고 당당하게 외치자.

"난 프로가 될 것이다! 진짜로 정말로 아름다운."

윤 웅 현

<정책·신방 2>

□시

11월 13일

—'94 전/노/대

세멘 바닥에 신문지 한장,
이런 잠자리면 어떤가?
새우잠이면? 게다 칼잠이면?
우리, 노동자
시린 물에 양주질 한번하고 하늘 쳐다보면
허리 곧추서고 가슴 열리는데

저 놈의 가을하늘,
웬 놈이 쓸었는지 낙엽 한장없는 마당
저런 하늘보면 낙서하고 싶어,
머물 꼭 찍어 휘갈기고 싶어
'프랑스가 제트비날이면
우리는 니기미럴 ××다.
민주노총 건설하고
노동해방 앞당기자!'

하늘보고 씩 웃는다.
가슴에 힘 들어본다.

이 형 숭

<서학·독일어 2>

□편지글—농활다녀온 전북 옥구의 마을 어른께

"아주머니의 한숨섞인 한탄과 동네분들의 땅이 꺼져라 내쉬는 한숨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정숙 어머님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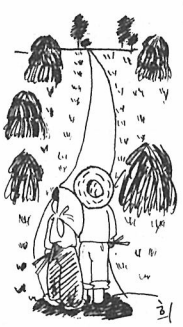
그 짧은 가을을 밀어내고 겨울을 재촉하는 비가 우리를 조급하게 만드는 요즘, 한 해 농사 마무리 잘 하시고 또한 가정내 두루 평안하신지요? 저는 지난 여름 농활을 다녀왔던 외대학생입니다. 대학생활 중 경험을 쌓겠다는 생각에서 갔었던 농활은 단순한 경험이 아닌 큰 깨달음으로 남았습니다. 또 지금까지 저를 튼튼하게 지탱시켜주는 커다란 뿌듯함입니다.

지난 부터운 여름, 콩새짝기 하시던 중 저희에게 자식지랑 늙어놓으시며 마냥 즐거워 하시던 그 모습 뒤에서 정부가 저지른 사태의 참상이 빚어낸 어두운 그림자를, 아주머니의 이마에 골깊게 패인 걱정들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해방이후 '원조'라는 미명하에 우리에게 자기나라의 농산물을 마구잡이로 들여오고 차츰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식의 술수를 쓴 미국에게 하나하나 내어주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떡 한두개가 아니라 우리 농민의 생존권마저 모조리 내주지는 정부의 속셈은 무엇인지 알담하기만 하군요. 아주머니의 한숨섞인 한탄과 동네분들의 땅이 꺼져라 내쉬는 한숨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왜 우리 정부는 함께 싸워 이겨내자고, 온 국민이 지지해 주겠다고 하는데도 미국에 고분고분하는지. 이것이 진짜 국민을 위하는 정부인지 아니면 세계정세의 흐름에 떠밀려 다니는 줏대없는 물풀인지…

분명 쌀시장 개방은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고 우리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허울좋은 명목임을 온 국민이 알고 있는데도 계속 우겨대는 이유는 무엇인지 한숨이 절로 나오는군요.



한 여름에 뜨겁게 달아올랐던 UR 국회비준저지 투쟁이 한동안 조용하다가 다시 달아오르는 요즘 농촌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요? 아마 지난 여름 저희들이 서투르게 피사리 한다며 짓이기고 다닌 논바닥은 지금쯤 추수가 끝난 들판이 되어 있겠군요.

농활때에는 온통 우루과이라운드인지 '우라질라운드'인지 하는 것에 골머리를 앓는 것 같더니 이제는 매년 앓아온 추곡수매가 상정에 대한 열병으로 고심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쭝요로운 밤의 걸실로 호롯해 하기도 전에 걱정들이 밀려오는군요. 정부의 '추곡수매가 동결'이란 발표는 정부 수매가가 생산비에도 못미치게 결정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그로 인한 농민의 손해도 막대하다고 그러더군요. 도시 한복판에서 사는 저희들이 미루어 짐작하는 농민분들의 고충은 농민분들이 땅을 치고 통곡할 사연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일 뿐이죠.

농업의 핵심이요, 우리 민족의 생명줄인 쌀을 지켜내는 길만이 우리나라를 우리 것으로 만드는 길임을 국민모두가 다시한번 인지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쪼록 겨울의 문턱에 들어선 이때, 더욱 건강에 주의하시고 저의 이 미비한 성의나마 정숙 어머님의 심난한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기를 기대하며 줄일까 합니다. 다음 농활 때 다시 뵐 것을 기약하며 이만 마칩니다.

1994년 11월 16일

외방 농활대원 이희옥 올림

이 희 옥

<법·법학 1>

파수대

당선의 환희

내년 학생회를 이끌어갈 일꾼들이 학생들의 열렬한 환호 속에 당선 축하를 받고 있다.

지난 11월 17일(목) 총학생회 선거 개표장에서.

<박종선 기자>

95학년도 제1학기 정규 수강신청

—아 래—

1. 수강신청 일시 및 장소
   1) 일시 : 1994. 11. 30(수)~12. 2(금)…3일간
   2) 장소 : 소속학과 학과장실 및 부전공 지도 교수실
   3) 강의 시간표 및 수강신청 OMR카드는 수강신청 당일 소속 학과장실에서 배부함.
   (단, 컴퓨터용 싸인펜은 각자 지참)
2. 수강신청 절차
   수강신청 당일 배부받은 강의시간표의 '수강신청에 관한 지침'을 숙지한 후 수강신청 OMR카드를 작성하여 학과장 및 부전공 지도교수의 확인 날인을 받은 후 학과장실에 제출한다.
3. 미수강신청자에 대한 규제 조치
   등록을 하였으나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은 학업성적표상 그 해당학기의 성적 평점평균이 0.00으로 표기되고 학사경고 대상이 된다.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의시간표 '수강신청에 관한 지침'을 참고 할 것.

*1994학년도 제2학기 성적확인 및 정정기간 변경안내

변 경 전	변 경 후
1995. 2. 21(화) ~2. 23(목)	1995. 1. 16(월) ~1. 20(금)

1994. 11.

교 무 처 장

94학년도 제 2학기 기말 시험 및 추가시험

— 아 래 —

1. 시험기간 :
1994. 12. 9(금)—12. 16(금)…6일간
시험시간표는 별도로 발표하지 않음.
2. 평가방법 : 담당교수 재량으로 평가 (필답고사, 과제물 부과, 기타 객관적인 방법 등으로)
3. 추가시험 :
가. 대상자 : 해당과목의 중간, 기말 시험을 모두 결시한 자로서 1회 이상 유고결석한 경우에 한 함
나.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장소 : 1994. 12. 19(월)—12. 21(수), 해당대학 교학과
다. 추가시험 실시 : 1994. 12. 23(금)
라. 추가시험 성적제한 : A° 이하 (학칙 제36조)

1994. 11.

교 무 처 장

94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1994학년도 동계 계절학기의 개설을 다음과 같이 예정 공고하니 수강희망자는 신청하기 바람.

— 다 음 —

1. 목적
   가. 정규학기중 취득하지 못한 학점을 방학기간 중에 취득하게 하고
   나. 하위급 성적에 대한 재수강 기회를 부여하며
   다. 졸업에 필요한 최저이수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
2. 수업 기간 : 1994. 12. 19(월)—1995. 1. 6(금)…16일간 (토요일 포함)
3. 주당 강의 실시일 : 주 6일간(정규학기의 주당 1시간 교과목은 통산 16시간)
4. 수강 장소 : 본교 이문동 소재 강의실
5. 개설 대상 과목 : 가) 본교에 개설되어 있는 전체 교과목
   나) 본교 교과과정 이외의 교과목
   *수강인원 30명 이상인 교과목에 한해서 개설하게 됨으로 수강 희망자는 빠짐없이 계절학기 수강희망과목 조사서를 제출하기 바람.
6. 수강 신청 최대학점 : 6학점 이내
   (단, 계절학기 수강학생은 '94. 2학기 재학생에 한하며, 7개학기 총 취득학점이 134학점(법학과 144학점) 이상인 학생은 그 해당학기에 개설되는 계절학기를 수강할 수 없음.)
7. 수강희망과목 조사일 : 1994. 11. 30(수)—12. 2(금)…3일간
8. 조사서 배부 및 접수처 : 서울, 용인 캠퍼스 교무과
9. 수강신청 및 등록기간 : 1994. 12. 12(월)—12. 14(수)
10. 수강신청 및 등록처 : 서울, 용인 캠퍼스 교무과
11.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고 함.

1994. 11.

교 무 처 장

공 고

95학년도 제1학기 고시장학생 선발

—아 래—

1. 신청기간 : 1994. 11. 25(금)—1994. 12. 15(목).
2. 신청장소 : 학생처 장학계
3. 신청자격 : 1994. 6. 1.—1994. 12. 1. 기간중 국가에서 시행하는 고시
   (사법, 행정, 외무, 회계사, 군법무관, 기술, 입법)에 1차이상 합격한 재학생.
4. 구비서류 : 가. 합격확인서 1부.
   나. 재학 증명서 1부.

95학년도 제1학기 교내 성적장학생 선발

—아 래—

1. 신청기간 : 1994. 11. 25(금)~1994. 12. 15(목)
2. 신청장소 : 각 학과장실
3. 신청서류 : 가. 장학금수혜신청서 1부 (각 학과사무실 비치)
   나. 재산세 과세 증명서 1부 (단, 무주택인 경우에는 비과세 증명서)

1994. 11. 22

학 생 처 장